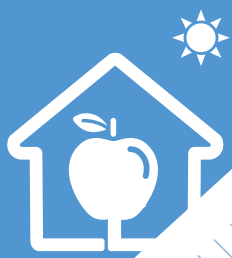
E 01-2021-02

2021 여름

농업·농촌경제 동향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특별주제

– 농업인의 이상기후 대응 현황과 시사점
– 2021 하반기 농업부문 수정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와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에 관한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정책 담당자와 농업종사자의 의사결정에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 분기별로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봄(5월), 여름(8월), 가을(11월), 겨울(2월)에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관측&동향/농정동향/농업농촌경제동향")

작성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양지아 jigeumaa@krei.re.kr, 서홍석 hongseokseo@krei.re.kr

연락처 전화: 061-820-2318 팩스: 061-820-2409

목 차

Ⅰ. 일반경제 동향

1. 경제성장 ····· 1
2. 고용 ····· 3
3. 소비 ····· 4
4. 물가 ····· 6
5. 금융·환율 ····· 11
6. 세계경제 ····· 14

Ⅱ. 농촌경제 동향

1. 농림어업 경제성장 ····· 15
2. 농촌 물가 ····· 16
3. 농림어업 취업자 ····· 21
4. 농축산물 수출입 ····· 23

Ⅲ.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1. 곡물 ····· 29
2. 엽근채소 ····· 34
3. 양념채소 ····· 40
4. 과일 ····· 49
5. 과채 ····· 55
6. 축산 ····· 63

Ⅳ. 음식점 농축산물 소비 실태

1. 조사 개요 ····· 71
2. 품목별 농축산물 소비 실태 ····· 73

특별주제

농업인의 이상기후 대응 현황과 시사점 ····· 87
2021 하반기 농업부문 수정 전망 ····· 103

요 약

Ⅰ. 일반경제 동향

- 2021년 2/4분기 경제성장률(실질GDP)은 전년 동기 대비 5.9% 성장하였으며, 민간소비와 정부소비의 증가폭 확대가 영향을 미침.
- 2021년 2/4분기 취업자 수는 2,86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함. 농림어업 취업자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한 154만 명으로 나타남.
- 2021년 1/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1.2% 증가함. 2021년 6월 소매판매는 백화점·온라인 매출액 증가, 소비심리 개선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승용차 판매·할인점 매출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2021년 2/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2.5% 상승함. 품목성질별로 상품, 공업제품, 서비스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각 3.7%, 2.7%, 1.5% 상승함.
- 2021년 2/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106.0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2% 상승하였으며, 농림수산품 수출물가지수의 경우 112.9로 전년 동기 대비 1.9% 하락함.
- 2021년 5월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는 전월 대비 0.6% 증가하고, 광의통화(M2)와 금융기관유동성(Lf)는 전월 대비 각각 0.6%, 0.4% 증가하였음. 2021년 6월 시장금리(국고채3년)는 기준금리 인상 기대 강화 등으로 크게 상승하였다가 7월 들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반락함.
- 2021년 2/4분기 원/달러 환율, 원/유로 환율, 원/위안 환율은 전기 대비 상승하였지만, 원/100엔 환율은 전기보다 하락함.
- 2021년 1/4분기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는 상승세가 지속되어 각각 6.4%, 18.3% 성장하였지만, 일본과 유럽 경제는 코로나 19에 따른 소매판매 감소로 인해 각각 1.0%, 0.3% 역성장함.

Ⅱ. 농촌경제 동향

- 2021년 2/4분기 농림어업 GDP는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하였으나 전기 대비 13.6% 감소함.
- 2021년 2/4분기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0% 상승하였으나, 전기 대비 2.8% 하락함.
  - 부류별로 곡물, 청과물, 축산물, 특용작물, 화훼류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함.
- 2021년 2/4분기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2%, 전기 대비 1.8% 상승함.
  - 재료비 구입가격지수는 종자종묘, 비료비, 농약비, 사료비 상승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상승함.
  - 노무비, 경비, 자산구입비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8%, 4.7%, 4.5% 상승함.
- 2021년 2/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118.2로 전년 동기 대비 10.4% 개선됨.
  - 농가교역조건의 개선은 농가판매가격지수가 15.0% 상승하고, 농가구입가격지수가 4.2% 상승하였기 때문임.
- 2021년 2/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하였으며,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함.
- 2021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약 21억 7,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9%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약 107억 3,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6% 증가함.
  - 순수입액은 약 85억 5,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5% 증가함.

Ⅲ. 특별주제

1. 농업인의 이상기후 대응 현황과 시사점

- 2020년 이상기후로 농작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그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함.
  - 2020년 7~8월 긴 장마와 3번의 태풍은 농산물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쳐 사과와 배의 가격은 평년에 비해 92%, 25% 상승하였고, 배추와 무의 가격은 각각 55%, 31% 상승함.
  - 농작물재해보험 전체의 손해율은 2015년 1.04%에서 2020년 5.09%로 증가함. 손해율의 증가는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뿐만 아니라 농작물재해보험 유지에 필요한 정부의 재정 역시 증가함을 의미함.
- 농업인들은 미래 이상기후가 보다 심화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상기후 대응에 따라 중간재비와 노동력 투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농업인에게 정확한 맞춤형 정보 제공, 이상기후 대응 교육 및 정책 홍보가 긴요함.
  - 농업인들은 이상기후가 과거에 비해 더 자주, 더 세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미래의 이상기후가 보다 높은 강도로 보다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응답은 91.0%로 매우 높게 나타남. 이상기후 발생 시 농약(항생제)과 노동력이 더 많이 사용되어 이상기후가 농업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이상기후 대응기술을 농사에 적용하는 데 따르는 문제점으로는 '고비용의 시설투자가 뒤따르는 문제'(42.0%), '기술을 적용한다고 해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인식'(31.5%) 등으로 나타남.
  - 이상기후 대응 관련 교육의 애로사항으로는 '이상기후 대응 관련 교육의 내용이 많지 않다'(42.3%), '이상기후 대응 관련 교육 내용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39.6%) 등이 있었음. 이는 이상기후 대응 관련 교육 내용을 보다 확대하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등 맞춤형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함.
- 이상기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상기후가 농축산물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음. 또한 맞춤형 정보 제공, 이상기후 대응 교육 및 정책 홍보 강화가 필요함.
  - 이상기후 영향평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분석 툴과 관련 자료의 축

적이 필요함.

- 농가들에게 정확한 맞춤형 이상기후 정보와 이상기후 영향 정보, 그리고 대응기술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더 나아가 농가들에게 실효성 있는 이상기후 대응 교육 및 정책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2021년 하반기 농업부문 수정 전망

- (전망모형)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07~08년 개발한 이후 지속 운용하고 있는 KREI-KASMO를 이용
  - 국내 농업부문에 한정된 부분균형모형으로 국제시장 및 비농업부문 시장은 모형에서 외생변수로 취급하고, 국내 농산물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으로 설정
  - 재배업 65개, 축산업 9개 등 총 74개의 품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감자와 배추, 무는 작형별로, 파와 낙농품은 품목별로 세분
- (거시지표) 2021~30년 최근 국내외 전망기관이 발표한 거시경제지표 전망치를 이용함
- (재배업 생산 전망) 2021년 경지면적은 전년보다 0.9% 줄어든 155.0만 ha로 전망하나,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162.4만 ha로 전망
  - 2021년 경지면적 감소폭 보다 농가인구의 감소폭이 커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은 전년보다 각각 0.9% 증가할 전망이며, 경지이용률은 1.0% 증가할 전망
  - 중장기적으로 농촌의 고령화, 농지 전용 수요 증가 등으로 경지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21년 재배면적은 조미채소, 과채류, 과수 및 특용작물을 제외한 모든 부류에서 감소
  - 특용·약용작물과 기타작물을 제외한 부류별 재배면적은 중장기적으로 대부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축산업 생산 전망) 2021년 가축 사육마릿수는 전년대비 4.6%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모돈 감소로 인해 돼지 사육마릿수가 감소하나 가임암소 증가로 인해 소 사육마릿수가 증가하여 우제류 사육마릿수는 전년과 비슷할 전망
  - 2020년 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으로 가금류 사육마릿수는 5.0%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중장기적으로 육류 및 계란 소비 증가로 젖소와 오리를 제외한 모든 가축의 사육마릿수가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농식품 소비 동향) 90년대부터 소비자의 식품소비행태 변화 등으로 대표적인 7대 곡물과 6대 과일 소비는 감소하고, 육류와 수입과일의 소비는 증가하는 추세
  - 쌀 등 곡물과 6대 과일의 1인당 소비량은 감소하고 오렌지와 열대과일 소비량은 증가
  - 3대 육류의 1인당 소비량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2.9% 증가
  - 곡물, 채소, 과일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수입과일과 육류 소비량은 증가할 전망
- (농업생산액) 2021년 농업생산액은 9.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재배업, 축잠업은 각각 5.4%, 14.3%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쌀, 마늘, 대파, 건고추 등의 생산량 감소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곡물류와 조미채소류의 생산액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과실류 생산액은 개화기 이상저온 등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이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생산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한육우와 돼지는 생산량 증가와 함께 가격도 상승하여 생산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며, 닭, 오리, 계란은 HPAI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상승하고, 우유는 젖소 마리당 원유 생산량이 증가하여 축산업 생산액이 전년 대비 증가할 전망
- (부가가치) 2021년 농업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8.5%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재배업 중간재비는 전년과 비슷하나 판매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액 증가로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중간재비가 증가하나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액 증가폭이 매우 커 전년 대비 26.5%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농업교역조건) 2021년 농업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6.3% 상승하나 농가판매가격지수의 상승률이 8.8%로 전망됨에 따라 농업교역조건지수는 2.4% 개선될 전망
  - 2021년 국제 유가 상승과 국제곡물 가격 상승 영향으로, 영농광열비를 비롯한 농업 용품 구입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농업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상승할 전망
  - 2021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농축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여 전년 대비 상승할 전망
  - 농업구입가격지수 연평균 상승률이 농가판매가격지수의 상승률보다 커 농업교역조건은 중장기적으로 연평균 0.7% 수준 악화될 전망

Ⅰ. 일반경제 동향[1)]

1. 경제성장[2)]

- 2021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7%, 원계열은 전년 동기 대비 5.9% 성장함. 건설투자와 수출이 감소로 전환되고 설비투자의 증가폭이 축소되었지만, 민간소비와 정부소비의 증가폭 확대가 영향을 미침.
  - 2021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기 대비 0.6% 감소함.

부문별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구분	2019				2020[p]				2021[p]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G D P 성장률	−0.2	1.0	0.4	1.3	−1.3	−3.2	2.2	1.1	1.7	0.7(5.9)
민간소비	0.2	0.7	0.5	0.9	−6.6	1.2	0.2	−1.3	1.2	3.5(3.6)
정부소비	1.0	1.6	1.7	1.9	1.6	1.0	0.1	−0.4	1.6	3.9(5.3)
건설투자	−0.2	2.4	−3.3	5.3	0.1	−2.9	−3.9	3.5	1.3	−2.5(−1.5)
설비투자	−8.3	3.5	0.3	3.4	0.1	0.7	5.8	−0.6	6.1	0.6(12.2)
총 수 출	−4.2	2.2	3.7	0.5	−0.8	−15.9	16.3	5.3	2.0	−2.0(22.4)
총 수 입	−3.8	3.9	−0.1	−0.6	−2.6	−5.8	5.9	1.5	2.9	2.8(13.7)

주 1. 2020[p], 2021[p] 자료는 잠정치임.
2. 표 안의 숫자는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이며, ( )는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3. 2015년 기준 연쇄가중법에 의해 추계된 실질 GDP
자료: 한국은행

1)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농업관측본부 김준호 연구원(kjhid92@krei.re.kr), 서홍석 연구위원(hongseokseo@krei.re.kr)이 작성함.

2) 경제성장 부문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1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2021.07.2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경제동향(2021.06.11., 2021.07.16)」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 부문별 경제성장률을 보면 정부소비, 민간소비는 증가한 가운데 건설투자 및 수출은 감소하였음.
  - 2021년 2/4분기 민간소비는 의류 등의 준내구재와 오락문화, 음식숙박 등의 서비스 등이 늘어 전기 대비 3.5% 증가하였으며,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3.9% 증가함.
  - 2021년 2/4분기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2.5% 감소하였으며, 설비투자는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0.6% 증가함.
  - 수출은 자동차, LCD 등이 줄어 2.0%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1차 금속제품, 화학제품 등이 늘어 2.8% 증가함.
-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등이 감소로 전환되었으나 서비스업의 증가폭이 확대됨.
  - 농림어업은 재배업을 중심으로 13.6% 감소함.
  - 제조업은 운송장비 등이 줄어 1.2% 감소함.
  - 서비스업은 운수업,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등이 늘어 1.9% 증가함.

경제활동별 경제성장률

단위: %

구분	2019				2020p				2021p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농림어업	7.1	−3.6	0.5	−1.3	3.4	−8.6	0.0	4.3	7.5	−13.6(−3.4)
제조업	−2.5	0.7	1.6	1.7	−0.1	−9.4	7.5	3.1	3.8	−1.2(13.7)
서비스업	0.6	1.1	0.7	1.2	−2.5	−0.8	1.0	0.6	0.7	1.9(4.2)
(도소매 및 음식숙박)	1.0	−0.5	1.1	1.4	−5.5	−3.0	1.2	0.0	1.5	1.5(4.2)
(운수업)	−1.6	2.2	−0.1	0.5	−11.3	−7.8	2.9	−2.7	1.5	9.3(10.9)
(금융 및 보험업)	0.8	1.3	0.7	2.4	2.5	2.7	2.4	2.3	2.6	−3.2(4.1)
(부동산업)	0.4	0.3	0.3	1.1	0.0	0.7	0.5	−0.3	−0.2	1.0(0.9)
(문화 및 기타)	−0.1	2.1	0.4	0.9	−16.2	−7.3	2.8	−0.6	−2.3	7.5(7.3)

주 1. 2020^{p}, 2021^{p} 자료는 잠정치임.
2. 표 안의 숫자는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이며, ( )는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3. 2015년 기준 연쇄가중법에 의해 추계된 실질 GDP
자료: 한국은행

2. 고용[3)]

- 2021년 2/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2,860만 명으로 전분기 대비 3.1%,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함.
- 2021년 2/4분기 취업자 수는 2,747만 명으로 전기 대비 4.2%,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함.
  - 산업별로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을 제외한 대다수의 업종에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임금근로자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 32만 1천 명, 임시근로자가 36만 명 각각 증가하였으나, 일용근로자는 11만 4천 명 감소하였음.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1만 3천 명 증가하였으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는 각각 8만 4천 명, 1만 5천 명 감소하였음.

고용동향

단위: 천 명, %

구분	2019	2020					2021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경제활동인구	28,186	28,012	27,911	28,075	28,068	27,995	27,748	28,596	1.9
(경제활동참가율)	63.3	62.5	62.5	62.7	62.6	62.4	61.7	63.5	0.8
취 업 자	27,123	26,904	26,749	26,849	27,068	26,952	26,369	27,467	2.3
• 농 림 어 업	1,395	1,445	1,255	1,534	1,548	1,443	1,253	1,537	0.2
• 광 공 업	4,444	4,389	4,453	4,382	4,357	4,363	4,423	4,387	0.1
(제 조 업)	4,429	4,376	4,438	4,369	4,346	4,351	4,410	4,375	0.1
• 건 설 업	2,020	2,016	1,962	1,969	2,043	2,090	1,995	2,107	7.0
• 도소매·음식숙박업	5,966	5,647	5,817	5,641	5,605	5,525	5,415	5,506	−2.4
실 업 자	1,063	1,108	1,162	1,226	1,001	1,043	1,380	1,129	−7.9
실업률(계절조정)	3.8	4.0	3.7	4.1	3.8	4.3	4.4	3.7	−0.4

자료: 통계청

3) 고용 부문은 통계청 보도자료 「2021년 6월 고용동향(2021.07.14.)」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경제동향(2021. 06.11., 2021.07.16)」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3. 소비[4)]

- 2021년 1/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1.2% 증가함.
- 2021년 4월 소매판매는 내구재(0.7%), 준내구재(4.3%), 비내구재(2.4%) 모두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2.1% 증가함.
- 2021년 5월 소매판매는 내구재(1.0%)는 증가하였으나, 준내구재(△8.8%), 비내구재(△0.4%)가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1.8% 감소함.
- 2021년 6월 소매판매는 백화점·온라인 매출액 증가, 소비심리 개선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승용차 판매·할인점 매출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소비동향

단위: %

구분	2019	2020p					2021p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4월p	5월p
민 간 소 비	2.1	−5.0	−6.6	1.2	0.2	−1.3	1.2		
소 매 판 매	2.4	−0.2	−5.7	5.9	−1.1	0.9	1.7	2.1	−1.8
(내 구 재)1	1.9	11.2	−4.9	17.6	−4.5	5.1	2.4	0.4	1.0
(준내구재)2	0.5	−12.5	−15.7	9.4	−2.5	0.1	3.0	4.2	−8.8
(비내구재)3	3.4	−0.5	−2.3	−1.0	1.4	−1.2	0.9	2.3	−0.4

주 1. 내구재는 승용차, 가전, 가구, 통신기기 등
2. 준내구재는 의류, 의복, 신발 등
3. 비내구재는 의약품, 화장품, 연료, 음식료품, 담배 등
4. 2020년, 2021년 소비동향은 잠정치임.
5. 표 안의 숫자는 전기 대비 증감률을 나타냄.

자료: 기획재정부

- 2021년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32만 원으로 전기 대비 3.1%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함.
  - 근로소득, 재산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5%, 12.7% 감소하였으나, 사업소득, 이전소득은 각각 1.6%, 17.5% 증가하여 경상소득은 0.1% 증가함.

4) 소비 부문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경제동향(2021.06.11., 2021.07.16)」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전가구(2인 이상) 가계소득 변화추이

단위: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19				2020				2021
	1/4	2/4	3/4	4/4	1/4	2/4	3/4	4/4	1/4
소 득	8.5	11.1	10.0	10.1	3.7	4.8	1.6	1.8	−0.7
경상소득	7.7	10.6	9.7	9.5	2.4	4.3	1.2	1.2	0.1
(근로소득)	8.1	12.2	9.7	9.8	1.8	−5.3	−1.1	−0.5	−3.5
(사업소득)	1.5	6.7	8.1	15.0	2.2	−4.6	−1.0	−5.1	1.6
(재산소득)	63.6	63.5	64.3	36.6	22.4	−11.7	18.5	7.4	−12.7
(이전소득)	12.7	6.2	10.8	−2.8	4.7	80.8	17.1	25.1	17.5
비경상소득	101.7	66.5	40.1	80.4	79.8	44.4	33.3	49.1	−30.0

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2019년 1분기부터 전체가구에 대한 가계동향은 1인 이상 가구로 발표되어 2018년은 전가구(2인 이상), 2019년 이후는 전가구(1인 이상) 가계소득 자료로 작성됨.
자료: 통계청

- 2021년 6월 소비심리지수[5]는 110으로 전월 대비 4.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1월 95 → 2월 97 → 3월 101 → 4월 102 → 5월 105 → 6월 110

소비심리지수 월별 변화추이

자료: 통계청

5) 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생활형편,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등 6개의 주요 개별지수를 표준화하여 합성한 지수로서 전반적인 소비자심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음.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높을 경우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과거에 비해 낙관적임을, 100보다 낮을 경우에는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남.

4. 물가[6)]

- 2021년 2/4분기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는 107.4로 전년 동기 대비 2.5% 상승함.
  - 품목성질별로 살펴보면, 상품과 서비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7%, 1.5% 상승함.

부문별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

구분	2020					2021	
	연간	1/4	2/4	3/4	4/4	1/4	2/4
총 지 수	105.4	105.7	104.8	105.5	105.6	106.9	107.4
	(0.5)	(1.2)	(–0.1)	(0.6)	(0.4)	(1.1)	(2.5)
상 품	103.3	103.7	102.2	103.2	104.0	105.5	105.9
	(0.9)	(1.9)	(–0.4)	(1.0)	(0.9)	(1.8)	(3.7)
농축수산물	119.1	114.7	114.8	122.1	124.9	130.0	128.4
	(6.7)	(2.0)	(3.2)	(10.3)	(11.4)	(13.3)	(11.9)
공업 제품	101.8	103.0	100.9	101.8	101.7	102.8	103.7
	(–0.2)	(2.0)	(–1.4)	(–0.5)	(–0.9)	(–0.2)	(2.7)
전기·수도·가스	87.0	90.0	89.8	81.9	86.3	85.5	85.5
	(–1.4)	(1.5)	(1.3)	(–4.3)	(–4.1)	(–5.0)	(–4.8)
서 비 스	107.2	107.4	107.1	107.4	106.9	108.0	108.6
	(0.3)	(0.6)	(0.1)	(0.3)	(0.0)	(0.6)	(1.5)

주: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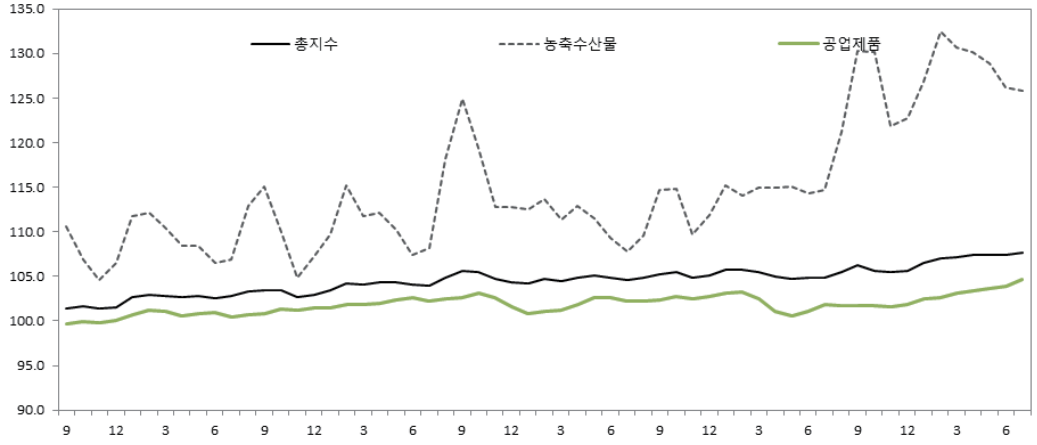
- 2021년 6월 상품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2% 하락하였으며, 서비스는 전월 대비 0.1% 상승함.
  - 농축수산물은 전월 대비 2.0% 하락하였으나, 공업제품은 전월 대비 0.2% 상승하였으며, 전기·수도·가스는 변동 없음.

6) 물가 부문은 통계청「2021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2021.07.02.)」, 한국은행「2021년 6월 생산자물가지수(2021.07.21.)」,「2021년 6월 수출입물가지수(2021.07.14.)」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 집세, 개인서비스는 전월 대비 각각 0.1%씩 상승하였으며, 공공서비스는 전월 대비 변동 없음.

• 2021년 6월 기준 지출목적별로는 전월 대비 교통, 음식·숙박, 주택·수도·전기·연료,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주류·담배는 상승하였고, 의류·신발, 보건, 통신, 교육은 변동 없으며, 기타 상품·서비스, 오락·문화, 식료품·비주류음료는 하락하였음.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15년=100)



자료: 통계청

• 2021년 2/4분기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128.4로 전년 동기 대비 11.9% 상승하였지만, 전기 대비 1.2% 하락함.

- 농산물 품목별로 살펴보면, 곡물, 채소, 과실, 기타 농산물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7%, 12.3%, 21.2%, 23.4% 상승하였음.
- 축산물은 전년 동기 대비 10.3%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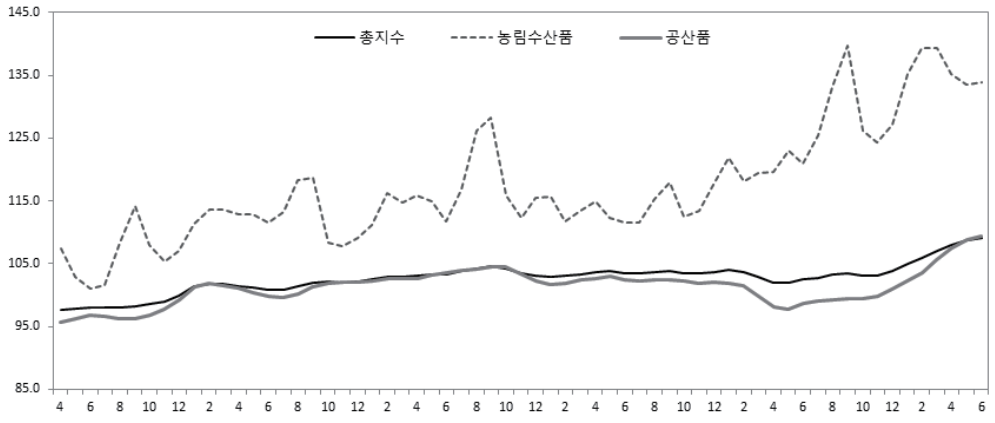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2015=100)

구분	2020					2021		등락률(%)	
	연간	1/4	2/4	3/4	4/4	1/4	2/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농축수산물	119.1	114.7	114.8	122.1	124.9	130.0	128.4	11.9	−1.2
농산물	121.0	117.0	112.7	125.1	129.3	137.1	131.0	16.2	−4.5
곡물	117.2	115.5	114.7	115.1	123.4	127.3	128.1	11.7	0.6
채소	128.3	125.7	112.0	143.1	132.4	143.5	125.8	12.3	−12.3
과실	114.9	108.6	111.2	112.7	127.1	134.5	134.8	21.2	0.2
기타농산물	123.7	118.0	115.5	122.1	139.2	143.1	142.5	23.4	−0.4
축산물	115.1	108.3	115.2	118.3	118.7	121.3	127.1	10.3	4.8
수산물	120.8	120.1	121.6	119.3	122.1	122.8	122.3	0.6	−0.4

자료: 통계청

- 2021년 2/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108.6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상승하였음.
  - 2021년 6월 농림수산품 생산자물가지수는 축산물이 올라 전월 대비 0.3% 상승함.
  - 공산품은 석탄 및 석유제품, 제1차 금속제품 등이 올라 전월 대비 0.6% 상승함.
  -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은 도시가스가 올라 전월 대비 0.3% 상승함.
  - 서비스는 운송서비스, 금융 및 보험서비스 등이 올라 전월 대비 0.2% 상승함.

월별 생산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15년=100)



자료: 통계청

- 2021년 2/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106.0으로 전기 대비 7.8%, 전년 동기 대비 12.2% 상승함.
- 2021년 6월 수출물가지수는 107.1로 석탄 및 석유제품,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등이 올라 전월 대비 0.7% 상승함.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출가격)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0.9% 상승함.
- 2021년 2/4분기 농림수산품 수출물가지수는 112.9로 전기 대비 3.8%상승하였지만, 전년 동기 대비 1.9% 하락함. 6월 농림수산품 수출물가지수는 115.2로 전월 대비 2.1% 상승함.
- 2021년 2/4분기 공산품 수출물가지수는 106.0으로 전기 대비 7.8%, 전년 동기 대비 12.2% 상승하였으며, 6월 공산품 수출물가지수는 107.1로 전월 대비 0.7% 상승함.

부문별 수출물가지수(2015년=100)

구분	2020					2021			
	연간	1/4	2/4	3/4	4/4	1/4	2/4	5월	6월
총 지 수	94.7	96.8	94.5	95.0	92.6	98.3	106.0	106.4	107.1
	(-5.2)	(-2.8)	(-6.9)	(-6.0)	(-5.2)	(1.5)	(12.2)	(12.6)	(12.7)
농림수산품	114.1	116.6	115.0	114.5	110.1	108.7	112.9	112.8	115.2
	(-2.4)	(-1.7)	(-2.2)	(-3.1)	(-2.6)	(-6.8)	(-1.9)	(-2.0)	(0.6)
농 산 물	114.2	115.4	118.2	115.0	108.3	105.5	101.9	102.1	101.9
	(-1.5)	(-1.5)	(1.3)	(-2.9)	(-2.8)	(-8.6)	(-13.8)	(-14.2)	(-13.0)
공 산 품	94.7	96.7	94.4	95.0	92.6	98.3	106.0	106.4	107.1
	(-5.2)	(-2.8)	(-6.9)	(-6.0)	(-5.2)	(1.6)	(12.2)	(12.7)	(12.8)

주: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 2021년 2/4분기 수입물가지수는 112.6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5%, 전기 대비 6.4% 상승함.
- 2021년 6월 수입물가지수는 115.4로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광산품,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이 올라 전월 대비 2.3% 상승함.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입가격)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2.6% 상승함.
- 2021년 2/4 농림수산품 수입물가지수는 114.0으로 전기 대비 7.4%, 전년 동기 대비 9.7% 상승하였으며, 6월 농림수산품 수입물가지수는 114.7으로 전월 대비 0.6% 하락함.
- 2021년 2/4분기 공산품 수입물가지수는 108.4로 전기 대비 4.1%, 전년 동기 대비 6.0% 상승하였으며, 6월 공산품 수입물가지수는 109.5로 전월 대비 0.7% 상승함.

부문별 수입물가지수(2015년=100)

구분	2020					2021			
	연간	1/4	2/4	3/4	4/4	1/4	2/4	5월	6월
총 지 수	99.9	105.0	98.4	99.3	96.7	105.9	112.6	112.8	115.4
	(-8.7)	(-2.1)	(-11.7)	(-10.2)	(-10.5)	(0.8)	(14.5)	(14.2)	(14.0)
농림수산품	102.7	104.0	103.9	102.3	100.8	106.1	114.0	115.3	114.7
	(0.6)	(6.8)	(1.2)	(-1.5)	(-3.5)	(2.1)	(9.7)	(9.6)	(11.2)
농 산 물	100.2	99.1	98.8	100.2	102.6	110.4	118.1	119.9	118.7
	(1.6)	(3.9)	(-1.1)	(0.0)	(3.9)	(11.4)	(19.4)	(20.2)	(20.0)
공 산 품	101.8	103.8	102.2	102.2	99.0	104.2	108.4	108.7	109.5
	(-2.5)	(1.4)	(-3.3)	(-3.4)	(-4.5)	(0.4)	(6.0)	(6.0)	(6.5)

주: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5. 금융·환율[7)]

- 2021년 5월 원계열 기준 협의통화(M1, 평잔)는 전년 동월 대비 22.3% 증가(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 대비 0.6% 증가)함.
- 2021년 5월 원계열 기준 광의통화(M2, 평잔)는 전년 동월 대비 11.0% 증가(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 대비 0.6% 증가)함.
  - 금융상품별로는 수익증권,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MMF 등을 중심으로 증가함.
- 2021년 5월 금융기관유동성(Lf, 평잔)은 원계열 기준 전년 동월 대비 9.2% 증가(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 대비 0.4% 증가)함.

통화지표 증감률(평균잔액기준)

단위: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20									2021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M1[1]	16.9	19.3	21.3	23.0	24.0	25.1	27.8	26.8	25.6	25.2	26.0	24.5	24.2	22.3
M2[2]	9.1	9.9	9.9	10.0	9.5	9.2	9.7	9.7	9.8	10.1	10.7	11.0	11.4	11.0
Lf[3]	8.6	8.8	8.6	8.4	7.9	7.9	8.1	8.2	8.4	8.6	8.9	9.3	9.5	9.2
본원통화[4]	11.8	15.0	15.1	17.8	15.8	16.5	18.5	19.1	17.8	16.5	20.2	18.7	17.5	15.7

주 1. M1: 은행 및 비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투신사 MMF
2. M2: 은행 및 비은행(생보, 증권금융제외) 금융기관의 만기 2년 미만 예수금
3. 기존의 M3가 유동성 지표 신규편제에 따라 Lf로 개칭
4. 본원통화: 화폐발행액(기념화폐 제외) + 지급준비예치금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 2021년 6월 국고채(3년)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기대 강화 등으로 크게 상승하였다가 7월에 들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반락함.
  - 코스피는 국내외 경제지표 개선, 미 연준의 완화기조 지속 기대 등으로 상승하였다가 국내외 코로나19 델타변이 확산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됨.

7) 금융·환율 부문은 한국은행 「2021년 5월중 통화 및 유동성(2021.07.13.)」과 「2021년 6월중 금융시장 동향(2021.07.14.)」, 「2021년 6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2021.07.14.)」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금리동향

단위: 연 %

구분	2020					2021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국고채(3년)	0.8	0.9	0.9	1.0	1.0	1.0	1.0	1.1	1.1	1.1	1.3
회사채[1]	2.2	2.2	2.2	2.2	2.2	2.1	2.1	2.1	2.0	1.9	1.9
CD유통수익률(91일)	0.7	0.6	0.6	0.7	0.7	0.7	0.7	0.8	0.7	0.7	0.7
콜금리[2]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주 1. 회사채: 장외3년
2. 콜금리: 무담보콜금리(1일물)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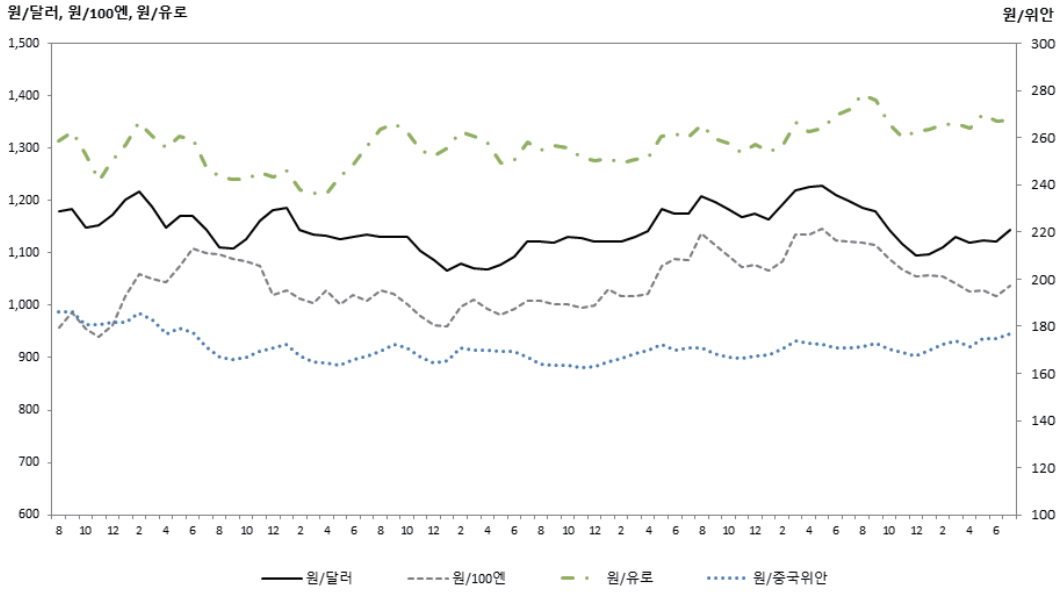
- 2021년 2/4분기 원/달러 환율은 전기 대비 0.6% 상승한 1,121원임.
  - 2021년 6월 이후 원/달러는 경제회복세가 상대적으로 빠른 미국과 주요국 간 통화정책 차별화 기대 등의 영향으로 달러화 강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국내 델타 바이러스 확산 우려 등의 영향으로 원화의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2021년 2/4분기 원/100엔 환율은 1,024원으로 전기 대비 2.5% 하락하였으며, 원/유로, 원/위안은 각각 1,351원, 174원으로 전기 대비 0.6%, 0.9% 상승함.

원화 환율 동향

구분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5월	6월
원/달러	1,166	1,180	1,194	1,221	1,189	1,118	1,114	1,121	1,123	1,121
원/100엔	1,070	1,105	1,096	1,135	1,119	1,070	1,051	1,024	1,029	1,019
원/유로	1,305	1,346	1,317	1,345	1,388	1,333	1,343	1,351	1,364	1,352
원/1위안	169	171	171	172	172	169	172	174	175	175

주: 평균 환율 기준
자료: 한국은행

원화 환율 추세



자료: 한국은행.

6. 세계경제[8)]

- 미국 경제는 견조한 경기·고용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인플레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중국 경제는 대내외 수요회복으로 양호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기저효과 축소 등의 영향으로 2/4분기 성장률은 둔화될 것으로 보임.
- 일본 경제는 방역 조치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소매 판매에 이어 사업생산까지 큰 폭 감소로 전환한 가운데, 최근 긴급사태 재선언 등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나타남.
- 유로존 경제는 백신접종 확대·주요국 이동제한조치 완화 등에 힘입어 소매판매가 증가로 전환되었으며, 서비스업 중심으로 심리지표의 개선세가 확대되고 있음.

세계 주요국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국가	지표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4월	5월	6월
미국	실질GDP(전기비 연율)	2.2	-3.5	-5.0	-31.4	33.4	4.3	6.4	-	-	-
	산업생산(전기비)	-0.8	-7.2	-1.7	-12.9	9.6	2.0	0.9	0.1	0.9	-
	소매판매(전기비)	3.3	0.5	-2.2	-7.3	14.2	0.4	8.0	0.9	-1.3	-
	실업률(계절조정)	3.7	8.1	3.8	13.1	8.8	6.8	6.2	6.1	5.8	5.9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1.8	1.2	2.1	0.4	1.2	1.2	1.9	4.2	5.0	5.4
중국	실질GDP(전년동기비)	6.0	2.3	-6.8	3.2	4.9	6.5	18.3	-	-	-
	산업생산(전년동기비)	5.7	2.8	-8.4	4.4	5.8	7.1	24.5	9.8	8.8	8.3
	소매판매(전년동기비)	8.0	-3.9	-19.0	-3.8	-0.4	3.2	33.9	17.7	12.4	12.1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2.9	2.5	5.0	2.7	2.3	0.1	0.0	0.9	1.3	1.1
일본	실질GDP(전기비)	0.0	-4.7	-0.5	-8.1	5.3	2.8	-1.0	-	-	-
	산업생산(전기비)	-3.0	-10.3	0.0	-16.8	9.0	5.7	2.8	2.9	-6.5	-
	소매판매(전기비)	0.1	-3.3	1.2	-7.0	8.2	0.1	0.4	-4.6	-0.3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0.5	0.0	0.5	0.1	0.2	-0.8	-0.4	-0.4	-0.1	-
유로존	실질GDP(전기비)	1.3	-6.5	-3.8	-11.5	12.6	-0.6	-0.3	-	-	-
	산업생산(전기비)	-1.3	-8.6	-3.1	-15.8	16.1	4.3	1.0	0.6	-1.0	-
	소매판매(전기비)	2.4	-0.9	-2.5	-4.8	10.4	-1.3	-1.5	-3.9	4.6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1.2	0.3	1.1	0.2	0.0	-0.3	1.1	1.6	2.0	-

자료: 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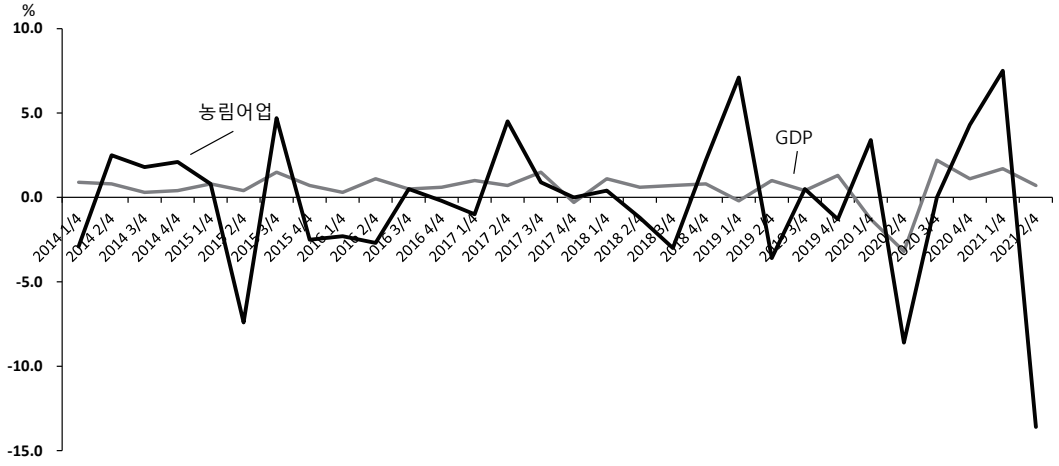
8) 세계경제 부문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경제동향(2021.06.11., 2021.07.16)」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Ⅱ. 농촌경제 동향[1)]

1. 농림어업 경제성장

-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중 농림어업은 2021년 2/4분기 7조 5,03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전기 대비 13.6% 감소함.
  - 2021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475조 7,62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전기 대비 0.7% 증가함.

농림어업 경제성장률 추이(2015년 연쇄가격 기준)



주: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이며, 2019년, 2020년, 2021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1)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김재휘 연구원(raccoon_kjh@krei.re.kr), 서홍석 연구위원(hongseokseo@krei.re.kr)이 작성함.

2. 농촌 물가

2.1. 농가판매가격지수

- 2021년 2/4분기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30.0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0% 상승하고, 전기 대비 2.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부류별로 살펴보면, 곡물, 청과물, 축산물, 특용작물, 화훼류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함.

농가판매가격지수(2015년=100)

구 분	가중치	2019	2020	2020	2020	2021	2021	등락률(%)	
		연간	연간	1/4	2/4	1/4	2/4	전년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총 지수	1,000.0	109.1	117.0	113.4	113.0	133.7	130.0	15.0	-2.8
곡물	280.1	122.4	127.5	131.8	121.0	144.9	141.4	16.9	-2.4
-미곡	234.3	122.8	129.0	136.8	123.8	146.1	139.6	12.8	-4.4
-맥류	5.5	96.4	104.7	167.3	95.1	60.3	87.2	-8.3	44.6
-두류/잡곡	23.9	147.3	137.1	122.2	124.4	170.4	197.1	58.4	15.7
-서류	16.4	93.4	110.9	88.7	105.7	136.5	96.8	-8.4	-29.1
청과물	406.5	117.0	133.6	122.8	127.9	155.7	140.3	9.7	-9.9
-채소	268.9	101.6	118.6	124.7	88.9	160.0	101.0	13.6	-36.9
-과수	137.6	142.5	158.5	119.5	192.9	148.4	205.6	6.6	38.5
축산물	252.6	97.4	101.8	97.9	101.9	110.7	119.8	17.6	8.2
-가축	185.1	101.0	105.5	99.1	106.5	106.6	120.2	12.9	12.8
-기타	67.5	91.0	95.3	95.8	94.0	117.9	119.1	26.7	1.0
기타농산물	60.8	102.3	102.2	106.1	93.3	129.9	114.4	22.6	-11.9
-특용작물	42.4	98.3	97.5	96.0	91.1	123.8	113.0	24.0	-8.7
-화훼	15.3	108.7	109.6	122.9	95.9	142.5	118.1	23.1	-17.1
-부산물	3.0	103.5	106.0	105.5	105.5	100.8	100.8	-4.5	0.0

자료: 통계청

- 곡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41.4로 전년 동기 대비 16.9% 상승하였지만, 전기 대비 2.4% 하락함.
  - 고구마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2% 상승하였지만, 감자의 경우 10.3% 하락하여 서류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8.4% 하락함.
  - 두류/잡곡의 경우 옥수수, 콩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0%, 24.2% 상승하였고 팥과 검정콩은 각각 203.4%, 93.1% 상승하여 전년 동기 대비 58.4% 상승함.
  - 미곡과 멥쌀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8%, 17.5% 상승한 반면, 찹쌀은 25.0% 하락함.
  - 맥류는 쌀보리, 맥주보리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1%, 14.6% 하락하여 전년 동기 대비 8.3% 하락함.
- 채소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1.0으로 근채류를 제외한 전반적인 상승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13.6% 상승하였으나, 전기 대비 36.9% 하락함.
  - 엽채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시금치, 상추, 미나리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5%, 30.7%, 79.8% 상승하였지만, 배추, 양배추, 깻잎 가격이 각각 22.6%, 51.1%, 14.9% 하락하여 전년 동기 대비 8.4% 하락함.
  - 근채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무, 당근의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0%, 23.1% 하락하여 전년 동기 대비 13.5% 하락함.
  - 조미채소류는 건고추, 양파, 생강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27.4%, 7.5%, 27.69% 하락하였고, 마늘, 파, 풋고추 가격이 각각 103.0%, 100.8%, 23.8% 상승하여 조미채소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2.7% 상승함.
  - 과채류는 방울토마토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며, 특히 배의 경우 88.4% 상승하여 과채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6.6% 상승함.

- 과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205.6으로 감귤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가격이 상승하여 전년 동기 대비 6.6%, 전기 대비 38.5% 상승함.
  - 전 과수 품목의 농가판매가격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6.6~88.4% 상승하였으나, 감귤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6.1% 하락함.
- 축산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9.8로 전년 동기 대비 17.6%, 전기 대비 8.2% 상승함.
  - 가축의 경우 한우송아지(수), 젖소의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1%, 7.1% 하락하였지만, 한우(암, 수), 육우, 한우송아지(암), 육우송아지, 성돈, 자돈, 육계, 오리는 각각 6.1%, 21.5%, 15.0%, 21.6%, 12.4%, 4.8%, 14.9%, 22.8%, 90.6% 상승함.
  - 기타축산물의 경우 계란, 우유, 벌꿀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2.4%, 0.3%, 12.5% 상승함.

2.2. 농가구입가격지수

- 2021년 2/4분기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10.0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전기 대비 1.8% 상승함.
- 재료비 구입가격지수는 107.0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전기 대비 3.0% 상승함.
  - 종자종묘, 비료비, 농약비, 사료비 농가구입가격지수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 0.9%, 1.6%, 8.7% 상승하였지만 영농자재비 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0.3% 하락함.
- 노무비, 경비, 자산구입비 구입가격지수는 각각 134.3, 106.4, 119.4로 전년 동기 대비 8,8%, 4.7%, 4.5% 상승함.
- 농업용품과 농촌임료금을 통해 산출된 2021년 2/4분기 농업투입재가격지수는 109.5로 전년 동기 대비 6.8% 상승함.

농가구입가격지수(2015=100)

구 분	가중치	2019	2020	2020	2020	2021	2021	전년대비	
		연간	연간	1/4	2/4	1/4	2/4	전년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총 지수	1000.0	104.1	106.1	105.9	105.6	108.1	110.0	4.2	1.8
가계용품	484.8	104.9	106.1	105.9	105.5	108.0	108.4	2.7	0.4
재료비	250.6	95.6	101.8	100.1	101.5	103.9	107.0	5.4	3.0
–종자종묘	27.5	112.6	115.9	113.1	113.1	113.4	115.7	2.3	2.0
–비료비	39.0	72.6	77.9	77.9	77.9	78.6	78.6	0.9	0.0
–농약비	29.3	96.8	118.9	118.9	118.9	120.8	120.8	1.6	0.0
–사료비	136.0	98.2	102.1	99.5	102.1	105.5	111.0	8.7	5.2
–영농자재비	18.7	97.7	102.6	102.6	102.6	104.3	102.3	–0.3	–1.9
노무비	45.0	119.6	124.2	120.6	123.4	127.7	134.3	8.8	5.2
경비	129.0	106.6	103.3	108.4	101.6	103.1	106.4	4.7	3.2
–영농광열비	32.6	107.7	87.1	105.6	78.3	92.0	104.1	33.0	13.2
–임차료	40.5	109.8	112.4	111.6	111.9	114.1	114.4	2.2	0.3
–농작업위탁비	42.5	105.5	108.5	110.3	110.3	103.1	103.6	–6.1	0.5
–판매자재비	13.3	97.6	98.0	99.1	99.1	96.5	96.5	–2.6	0.0
자산구입비	90.6	112.4	113.2	110.7	114.3	118.1	119.4	4.5	1.1
–기계구입	58.9	104.6	104.3	104.5	104.2	104.2	104.0	–0.2	–0.2
–가축구입비	31.7	126.9	129.6	122.3	133.0	143.8	148.1	11.4	3.0

자료: 통계청

2.3. 농가교역조건지수

- 2021년 2/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118.2로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하였으며, 전기 보다는 4.4%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0% 상승하고, 농가구입가격지수는 4.2% 상승하였기 때문임.

농업경영조건지수

구 분	2020	2020	2021	2021	등락률(%)	
	1/4	2/4	1/4	2/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농가판매가격(A)	113.4	113.0	133.7	130.0	15.0	-2.8
농가구입가격(B)	105.9	105.6	108.1	110.0	4.2	1.8
농업투입재가격(C)	103.6	102.5	105.7	109.5	6.8	3.6
농가교역조건(A/B×100)	107.1	107.0	123.7	118.2	10.4	-4.4
농가경영조건(A/C×100)	109.4	110.2	126.5	118.8	7.8	-6.1

3. 농림어업 취업자

- 2021년 2/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53만 7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2%, 전기 대비 22.7% 증가함.
  -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141만 7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하였고, 전기 대비 6.3% 감소함.
  - 농림어업 취업자들 중 전체 남성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92만 3천 명, 여성 수는 2.1% 감소한 61만 4천 명임.
  - 농가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185만 3천 명임.

농림어업 취업자 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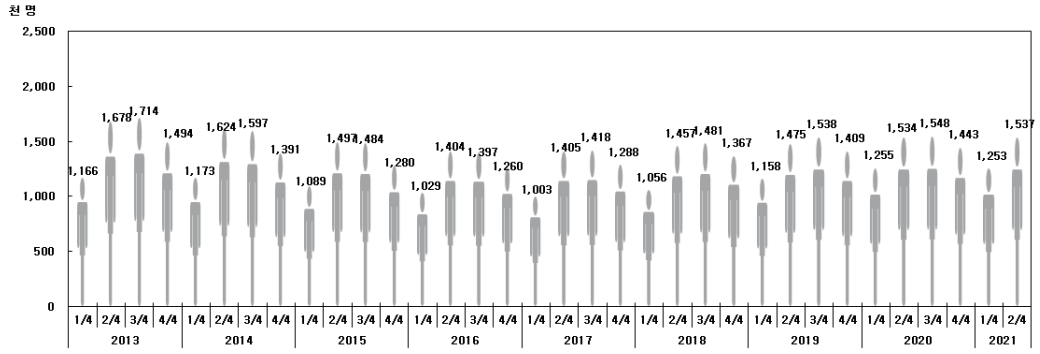
단위: 천 명

구 분		2020	2021		증감률(%)	
		2/4	1/4	2/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취업자	전산업	26,849	26,369	27,467	2.3	4.2
	(계절조정)	(26,665)	(26,882)	(27,285)	2.3	1.5
	농림어업	1,534	1,253	1,537	0.2	22.7
	(계절조정)	(1,412)	(1,512)	(1,417)	0.4	-6.3
	남성	907	804	923	1.8	14.8
	여성	627	449	614	-2.1	36.7
	농가	1,795	1,580	1,853	3.2	17.3
	농가남성	1,008	938	1,044	3.6	11.3
	농가여성	787	643	809	2.8	25.8

주: ( )안은 계절조정 값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값임.
2020년 계열을 추가하여 계절조정인자를 재작성함에 따라 1999년 6월 이후 계절조정 자료가 변경됨
자료: 통계청

-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4분기에서 3/4분기까지 증가하다가 4/4분기에서 감소하는 계절성을 보이고 있으며 2016년 이후에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2021년 2/4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비슷하여 증가세가 주춤함.

농림어업 취업자 수 변화추이



자료: 통계청

4. 농축산물 수출입

4.1. 수출 동향

- 2021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량은 112만 6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함.
  - 곡류와 채소류 수출량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7%, 15.1% 감소하였지만, 과실류는 57.2% 증가하여 전체 농산물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함.
  - 포유육류 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44.5% 증가하였으나, 가금육류는 34.2% 감소하여 축산물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8.6% 감소함.
  - 임산물은 전년 동기 대비 17.6% 감소하였지만, 전기 대비 15.1% 증가함.
- 2021년 2/4분기 농림축산물의 수출액은 21억 7,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9% 증가함.
  - 농산물 수출액의 경우 과실류, 채소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3%, 0.1%, 증가하였으나 곡류는 5.1% 감소함.
  - 축산물 수출액의 경우 포유육류, 낙농품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9.9%, 6.1% 증가하였으나 가금육류는 26.4% 감소함.
- 2021년 6월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7억 3,338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2.4%, 전월 대비 6.3%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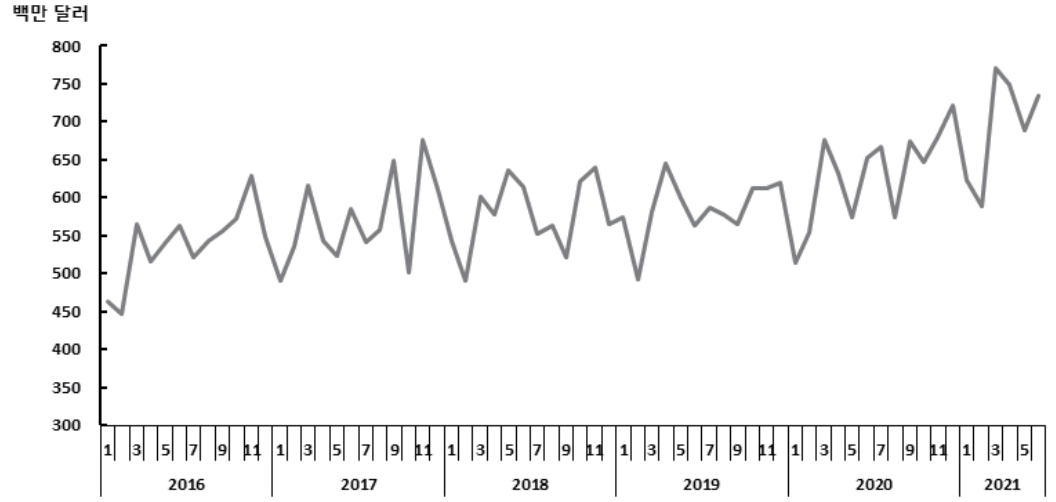
농림축산물 수출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20				2021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1/4		2/4		1/4		2/4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901	1,743	1,077	1,858	951	1,981	1,126	2,173	4.6	16.9
농산물	732	1,538	788	1,627	741	1,766	883	1,921	12.1	18.1
–곡류	13	9	64	26	11	9	61	25	–3.7	–5.1
–과실류	27	74	19	47	28	82	29	70	57.2	48.3
–채소류	29	115	47	120	33	142	39	120	–15.1	0.1
축산물	45	112	52	126	39	120	48	138	–8.6	9.6
–포유육류	1	4	1	6	1	7	2	8	44.5	29.9
–가금육류	13	18	15	21	8	13	10	15	–34.2	–26.4
–낙농품	10	39	10	38	10	42	9	41	–6.9	6.1
임산물	123	92	238	105	170	94	196	114	–17.6	7.8
수 산 물	174	545	141	549	165	565	181	684	28.1	24.6
전 체	1,075	2,288	1,218	2,407	1,115	2,545	1,307	2,856	7.3	18.7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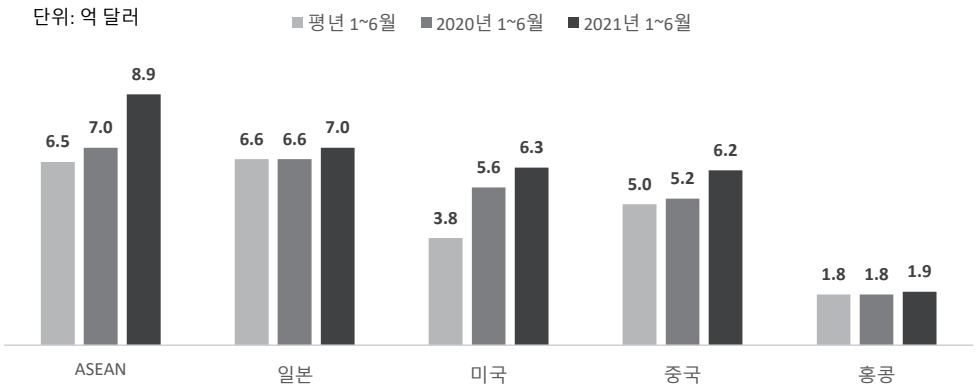
농림축산물 수출액 추이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21년 1~6월 농축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3% 증가한 41억 5천만 달러,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액은 20.7% 증가한 26억 6천만 달러임.
  - 주요 수출대상국 중 ASEAN, 미국, 중국 등의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 그중 對ASEAN 수출액이 26.6%로 가장 크게 증가함.
- 2021년 2/4분기 농수산물의 수출산업경기 전망지수(EBSI)는 120.8로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전기 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세부 항목별로는 수출상담(121.9), 수출국 경기(121.3), 수출계약(112.6) 등에서 뚜렷한 회복 조짐을 보일것으로 예상하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출상품 제조원가(92.1)는 다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2)]
  - 주요 수출 애로요인으로는 원재료 가격 상승(21.0%), 물류비용 상승(20.3%), 원화 환율 변동성 확대(12.5%)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주요 수출 대상국별 수출액 추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 2021년 2분기」.

2) 한국무역협회, '2021년 2/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2020.03.19).

4.2. 수입 동향

- 2021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수입량은 1,446만 4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함.
  - 부류별로 살펴보면,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9%, 8.2%, 6.7% 증가함.
- 2021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107억 3,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6% 증가함.
  - 농산물과 축산물, 임산물의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0%, 19.5%, 23.8% 증가함.
  - 농산물 중 곡류 수입액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옥수수가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23.4% 증가함.
  - 과실류는 유자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수입액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함.

농림축산물 수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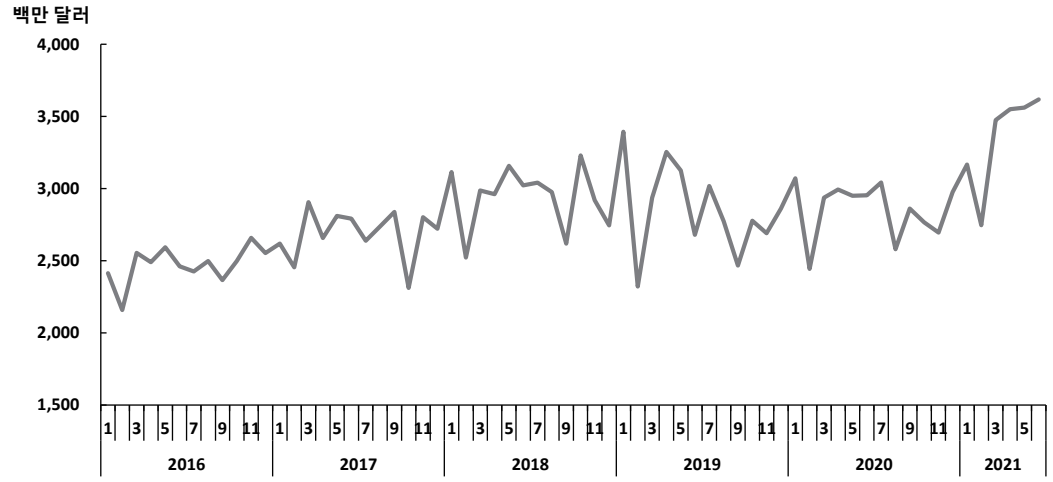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20				2021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1/4		2/4		1/4		2/4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3,315	8,455	13,874	8,900	13,432	9,390	14,464	10,731	4.2	20.6
농 산 물	9,039	5,060	9,202	5,440	8,923	5,709	9,472	6,530	2.9	20.0
–곡류	4,099	991	4,064	1,027	4,076	1,070	4,369	1,267	7.5	23.4
–과실류	316	494	356	613	312	549	368	690	3.2	12.5
–채소류	296	236	297	245	334	275	310	284	4.4	16.0
축 산 물	441	1,964	437	1,855	466	2,107	472	2,216	8.2	19.5
–포유육류	256	1,295	241	1,160	255	1,372	253	1,413	5.1	21.8
–가금육류	42	107	42	105	49	105	45	102	7.1	–2.5
–낙농품	80	289	84	297	91	328	92	332	9.1	11.6
임 산 물	3,835	1,431	4,236	1,604	4,043	1,574	4,519	1,985	6.7	23.8
수 산 물	1,257	1,356	1,413	1,322	1,622	1,444	1,275	1,452	–9.7	9.9
전 체	14,572	9,810	15,287	10,221	15,055	10,834	15,739	12,183	3.0	19.2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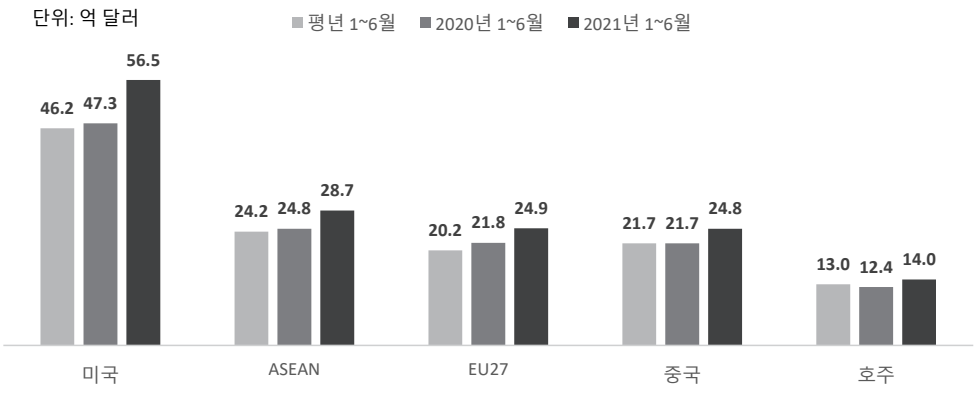
• 2021년 6월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36억 1,781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2.5%, 전월 대비 1.6% 증가함.

농림축산물 수입 추이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요 수입 대상국별 수입액 추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동향 2021년 1분기」.

- 2021년 1~6월 농축산물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9% 증가한 201억 2천만 달러,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17.8% 증가한 174억 1천만 달러임.
  - 5대 농식품 수입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미국 19.5%, ASEAN 15.9%, EU 14.4%, 중국 14.3%, 호주 12.8%).
  - 수입액 변화가 큰 국가는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임.

4.3. 순수입 동향

- 2021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량은 1,333만 7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함.
  - 농산물 순수입량은 858만 9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함.
  - 축산물 순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한 42만 5천 톤임.
- 2021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5% 증가한 85억 5,800만 달러임.
  -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순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8%, 20.2%, 2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농림축산물 순수입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20년 2/4분기		2021년 2/4분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2,797	7,042	13,337	8,558	4.2	21.5
농 산 물	8,415	3,814	8,589	4,609	2.1	20.8
축 산 물	384	1,730	425	2,079	10.5	20.2
임 산 물	3,998	1,498	4,323	1,871	8.1	24.9
수 산 물	1,272	773	1,094	768	-13.9	-0.6
전 체	14,069	7,815	14,432	9,327	2.6	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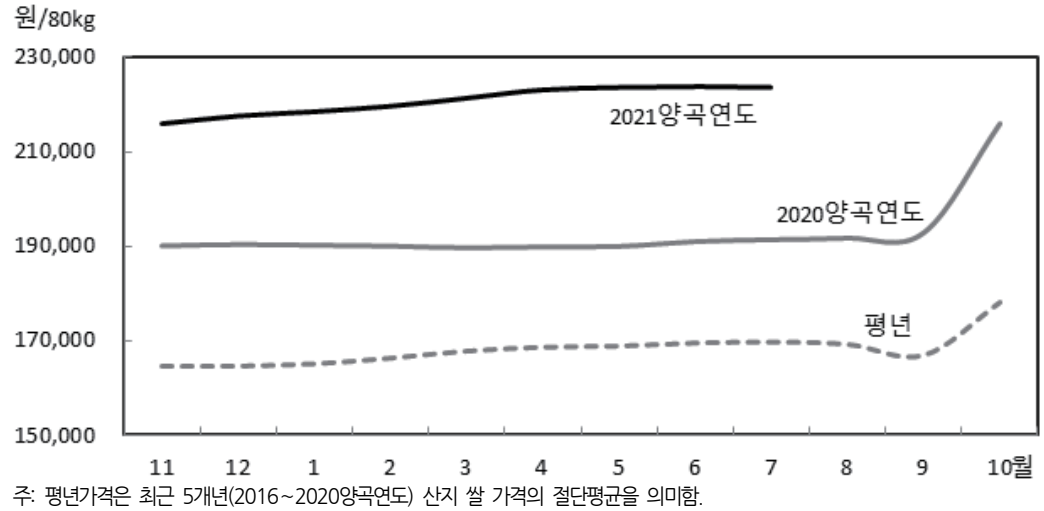
주: 순수입=(수입-수출)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Ⅲ.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1. 곡물[1)]

1.1. 쌀

산지 쌀 가격 추이



주: 평년가격은 최근 5개년(2016~2020양곡연도) 산지 쌀 가격의 절단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 2021년 2분기 동향
  - 2021년 2분기 산지 쌀 가격은 22만 3,342원/80kg(55,836원/20kg)으로 전 분기 및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 17.5% 상승
  - 2020년산 생산량 감소(전년 대비 6.4% 감소)에 따른 조곡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확기 이후에도 쌀 가격 전년 대비 상승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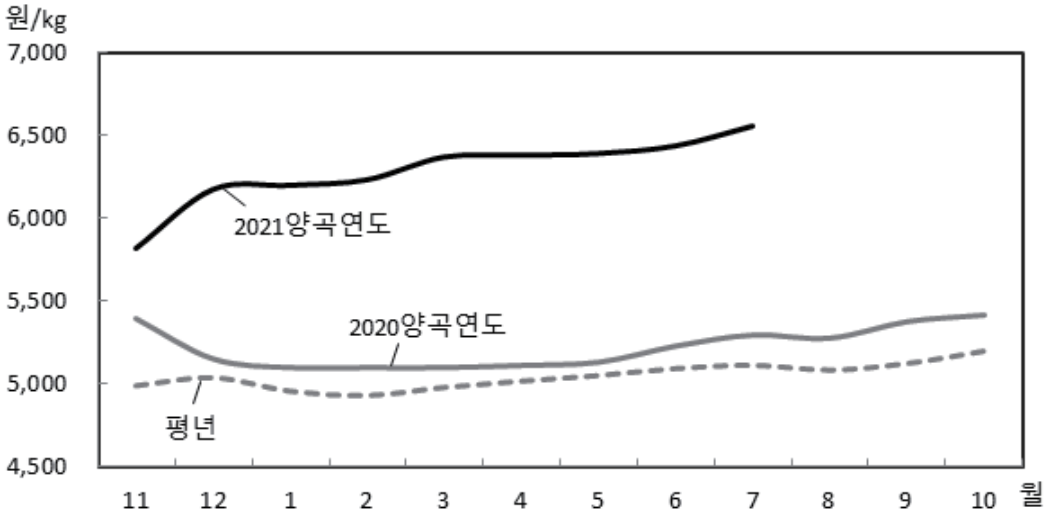
1)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김종인 연구위원(jongin@krei.re.kr), 박한울(phu87@krei.re.kr), 김창수(kcs87@krei.re.kr), 이진아(jina1008@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 정부는 쌀 수급안정을 위해 1~4월 중 정부양곡 21만 톤을 시장에 공급하였고, 6월에 추가적으로 공매(2020년산 4만 9천 톤, 2019년산 2만 8천 톤, 총 7만 7천 톤)가 시행되면서 쌀 가격은 안정세로 전환
  ※ 1~6월 중 정부양곡 총 29만 톤이 시장에 공급(2020년산 12만 5천 톤(산물벼 76천 톤 포함), 2018년산 40천 톤, 2019년산 12만 2천 톤)
  ※ 산지유통업체 전년 대비 재고 감소폭: 3월 말) △17.0% → 4월 말) △14.5→ 5월 말) △11.8→ 6월 말) △6.6%

• 2021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산지 평균 쌀 가격은 전년 대비 16.8% 상승하였으나, 전월 대비 0.1% 하락한 22만 3,448원/80kg(55,862원/20kg)임. 6월 공매 이후 산지유통업체 재고량이 전년보다 증가(7월 말 기준, 전년 대비 7.6% 증가)하는 등 물량 부족 현상이 상당 수준 해소됨에 따라 전년 대비 가격 상승폭도 완화
- 3분기 쌀 가격은 8월 추가공매에 따른 산지유통업체의 물량 부족 현상 해소와 2021년산 작황 호조 기대 등의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소폭 하락할 전망
  ※ 신곡이 본격적으로 유통되는 10월 이전까지 재고가 충분하지 않은 일부 산지유통업체의 상황과 추석 물가 안정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8만 톤(2019년산 5만 톤, 2020년산 3만 톤) 추가 공매 계획을 발표(21.8.3.)함에 따라 산지유통업체의 물량 부족 현상 대부분 해소될 전망
  ※ 농촌진흥청 벼 생육상황 조사결과(21.8.1)에 따르면 7월의 기온, 일조시간과 같은 기상 여건이 평년 대비 벼 생육에 유리하여 벼 생육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양호한 기상 여건이 계속 이어질 경우 벼 작황 호조로 신곡 공급량이 늘어나며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1.2. 콩

국산 콩(백태 상품) 도매가격 추이



주: 평년가격은 2016~2020양곡연도 기간 중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21년 2분기 동향
  - 2021년 2분기 국산 콩(백태 상품) 도매가격은 6,403원/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1%, 전 분기 대비 2.2% 상승
  - 2020년산 생산량 감소(전년 대비 23.2% 감소)와 콩 가공제품 소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국산 콩 가격은 수확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2~6월 월평균 0.8% 상승)
- 2021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국산 콩 가격(백태 상품)은 정부 공매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 1.9% 상승한 6,557원/kg임(전년 대비로는 23.8% 상승). 정부는 물량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6월 하순 정부재고 중 2019년산 국산 콩 구곡 997톤을 시장에 공급하였으나, 공매 가격이 높게 형성되며 가격 상승 추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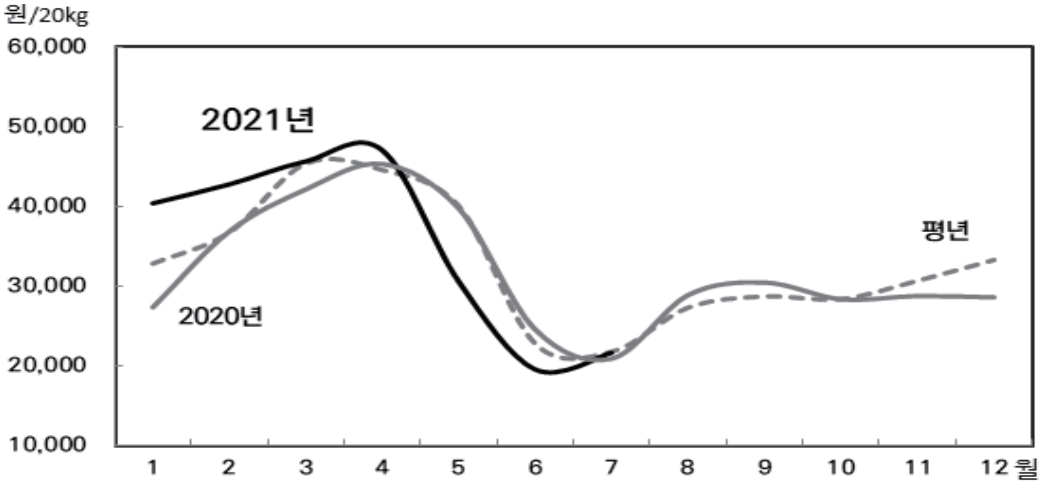
※ 2021년 6월 하순 공매 가격 전년 동기 대비 28.4% 상승(2020년 6월 하순 공매 가격(2019년산, 대립종 기준): 4,689원/kg, 2021년 6월 하순 공매 가격(2019년산, 대립종 기준): 6,023원/kg)

- 3분기 가격은 2020년산 콩 생산량 감소 영향이 이어지며 전 분기 대비 상승하겠으나, 총 5천 톤 규모로 정부재고 방출이 진행되고 있어 상승폭은 둔화될 전망

※ 정부가 6월 하순 이후 정부재고 중 일부 물량(6월 하순 방출 물량 포함 총 5천 톤, 공매: 2천 톤, 직배: 3천 톤)을 시장에 공급 중이므로 2020년산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한 국산 콩 부족 현상이 완화되며 가격 상승폭은 제한적일 전망

1.3. 감자

감자(수미 상품) 도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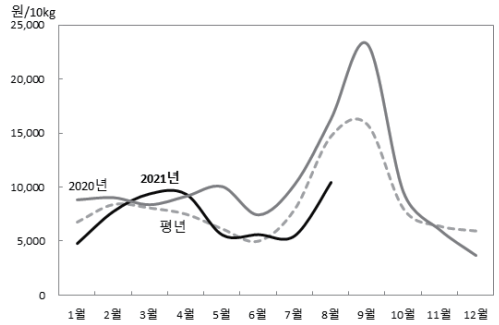
주: 평년가격은 2016~2020년 기간 중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21년 2분기 동향
  - 2분기 수미(상품) 평균 도매가격은 32,423원/20kg(가락시장 기준)으로 전년 대비 11.5%, 평년 대비 9.5% 하락
  - 2분기 수미 가격은 5~6월에 걸친 시설 봄감자 이모작 출하량 증가 및 노지 봄감자 품위 저하 등으로 전·평년 대비 하락
- 2021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수미(상품) 평균 도매가격은 21,599원/20kg으로 전년 대비 3.0% 상승(평년 대비로는 0.8% 하락)하였음. 이는 노지 봄감자 생산량이 전년 대비 7.3% 감소(348,995톤)한 영향에 더해 가락시장 가격 저조에 따른 지방 도매시장 출하 증가 영향 등으로 가락시장 반입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임.
  - 3분기 수미(상품) 도매가격은 3분기 주 출하 작형인 고랭지감자 생산량 감소 등으로 평년 대비 상승할 전망
    ※ 고랭지감자 작황이 역병 발생 등으로 전년보다는 부진하나 평년 대비 양호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재배면적은 전·평년 대비 감소(전년 대비 4.3%, 평년 대비 6.7% 감소한 3,246ha 전망)하여 생산량 기준 평년 대비 2.5% 감소할 전망
    ※ 고랭지감자 3분기 평년 가격은 25,956원/20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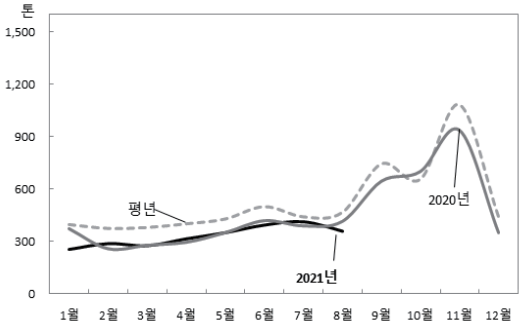
2. 엽근채소[2)]

2.1. 배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반입량 동향



주: 평년 가격 및 반입량은 2016~2020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21년 2분기 동향
  - 2분기 배추 평균 도매가격 6,830원/10kg (전년 대비 23.0% 하락, 평년 대비 10.3% 상승)
  - 겨울배추 저장 출하량 감소로 4월 가격 전년 대비 상승, 봄배추 생산량 증가로 5~6월 가격은 하락
    * 2021년 가격: (4월) 9,310원/10kg, (5월) 5,570원, (6월) 5,600원
    * 2분기 가격: (2021년) 6,830원/10kg, (2020년) 8,870원, (평년) 6,190원
- 2021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2021년 봄배추 저장량 5만 9천 톤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7.5%, 52.8% 증가)
    * 저장 출하 종료 시기 전년(8월 중·하순) 대비 늦고, 평년(8월 말)과 비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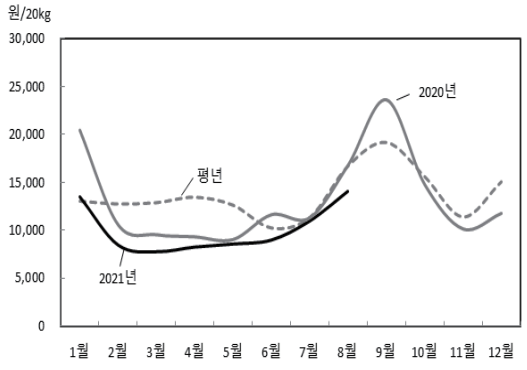
2)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한은수(hanes012@krei.re.kr), 한봉희(hanbh@krei.re.kr), 김다정(swetmug@krei.re.kr), 박수은(pse5484@krei.re.kr), 백호승(white77@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 2021년 고랭지배추 생산량 40만 톤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8.9%, 0.5% 증가)
  * 재배면적 4,908h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9%, 4.5% 감소)
  * 단수 8,151kg/10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2.2%, 5.2% 증가)
  * 7월 중·하순 고온 및 가뭄 발생했으나, 7월 상순까지 주산지 기상 여건 좋아 단수 증가
- 3분기 배추 출하량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9.8%, 5.5% 증가
- 3분기 배추 도매가격 전년(16,600원/10kg) 및 평년(12,790원) 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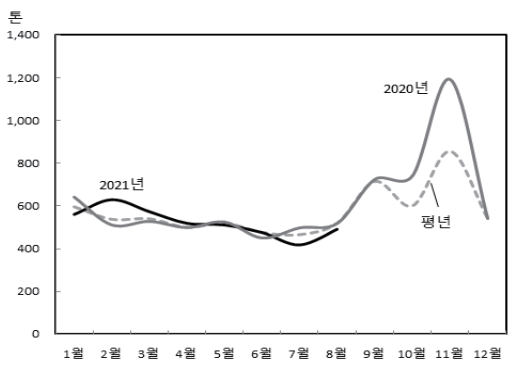
• 2021년 가을배추 재배의향면적
- 2021년 가을배추 재배의향면적 11,270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1.4%, 4.2% 감소)
  * 전년 출하기(2020년 12월) 및 육묘기(2021년 8월) 도매가격 하락으로 재배의향 감소

2.2. 무

도매가격 동향(상품)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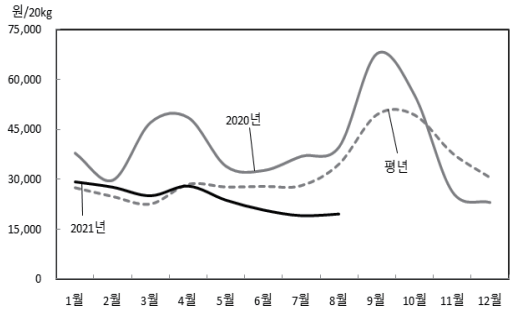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은 2016~2020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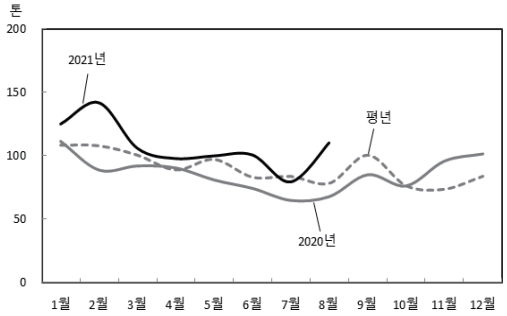
- 2021년 2분기 동향
  - 2분기 무 평균 도매가격 8,580원/20kg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4.3%, 29.0% 하락)
  - 월동무 저장 출하량 증가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가격 하락
    * 2021년 가격: (4월) 8,230원/20kg, (5월) 8,550원, (6월) 8,970원
    * 2분기 가격: (2021년) 8,580원/20kg, (2020년) 10,020원, (평년) 12,090원
- 2021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노지봄무 저장량 1만 1천 톤 (전년 대비 30.7% 감소, 평년 대비 12.0% 증가)
  - 2021년 고랭지무 생산량 24만 7천 톤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1.9%, 0.2% 증가)
    * 재배면적: 2,704h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7.1%, 1.0% 증가)
    * 단수: 9,149kg/10a (전년 대비 4.5% 증가, 평년 대비 0.8% 감소)
    * 준고랭지1기작 작황 평년 대비 부진, 고랭지무는 평년 수준
  - 3분기 무 출하량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3.6%, 2.7% 증가
    * 저장 노지봄 출하 지속, 고랭지무 본격 출하로 출하량 증가
  - 3분기 무 도매가격은 전년(17,250원/20kg) 및 평년(15,720원) 대비 하락
- 2021년 가을일반무 재배의향면적
  - 2021년 가을일반무 재배의향면적 4,473h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3.4%, 7.1% 감소)
    * 전년 출하기(11~12월) 가격 낮아 재배의향 감소, 주요 대체작목은 콩, 옥수수, 고구마 등

2.3. 당근

도매가격 동향(상품)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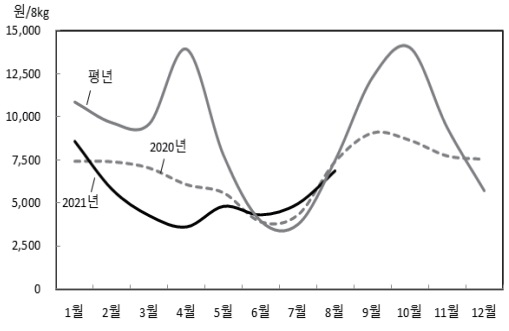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 및 반입량은 2016~2020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21년 2분기 동향
  - 2분기 당근 평균 도매가격 24,100원/20kg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37.1%, 14.2% 하락)
  - 봄당근 생산량 증가로 평년 대비 가격 하락
    * 2021년 가격: (4월) 27,930원/20kg, (5월) 23,680원, (6월) 20,690원
    * 2분기 가격: (2021년) 24,100원/20kg, (2020년) 38,340원, (평년) 28,100원
- 2021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2021년 봄당근 저장량 1만 2천 톤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7.1%, 8.5% 증가)
  - 2021년 고랭지당근 생산량 1만 톤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34.4%, 55.1% 증가)
    * 재배면적 409h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1.4%, 57.6% 증가)
    * 단수 2,507kg/10a (전년 대비 20.6% 증가, 평년 대비 1.6% 감소)
    * 7월 고온·가뭄으로 평창 진부면과 홍천지역 작황 부진, 평창 대관령면과 강릉은 일부 생육 지연
  - 3분기 당근 출하량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1.4%, 13.4% 증가
  - 3분기 당근 도매가격 전년(48,150원/20kg) 및 평년(37,400원) 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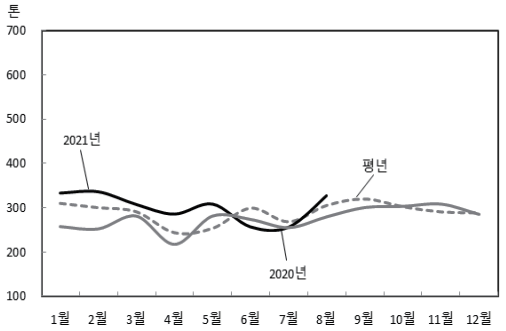
- 2021년 가을당근 재배(의향)면적 전망
  - 가을당근 재배(의향)면적 171h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1.2%, 19.1% 감소)
    * 전년 출하기(11~12월) 가격 낮아 재배(의향)면적 감소, 콩, 애호박, 가공용 무 등으로 작목 전환
    * 영남지역은 7월 상·중순 가뭄으로 일부 파종 지연, 시설 중심인 충청은 7월 하순 이후 주 파종

2.4. 양배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반입량 동향



주: 평년 가격 및 반입량은 2015~2019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21년 2분기 동향
  - 2분기 양배추 평균 도매가격은 4,230원/8kg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50.5%, 18.8% 하락)
  - 2020년산 겨울양배추 출하량 증가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가격 하락
    * 2021년 가격: (4월) 3,590원/8kg, (5월) 4,790원, (6월) 4,300원
    * 2분기 가격: (2021년) 4,230원/8kg, (2020년) 8,540원, (평년) 5,210원
- 2021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2021년 고랭지양배추 생산량 7만 8천 톤 내외 (전년 및 평년 대비 17.5%, 7.4% 증가)
    * 재배면적: 1,839h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0%, 11.9% 증가)

* 단수: 4,259kg/10a (전년 대비 16.4% 증가, 평년 대비 4.0% 감소)

* 7월 고온·가뭄으로 병해 발생하여 준고랭지1기작 양배추 작황 부진, 고랭지는 양호

- 3분기 양배추 출하량 전년 및 평년 대비 10.0%, 9.5% 증가
- 3분기 양배추 도매가격은 전년(7,860원/8kg) 및 평년(6,960원) 대비 하락

• 2021년 가을양배추 재배(의향)면적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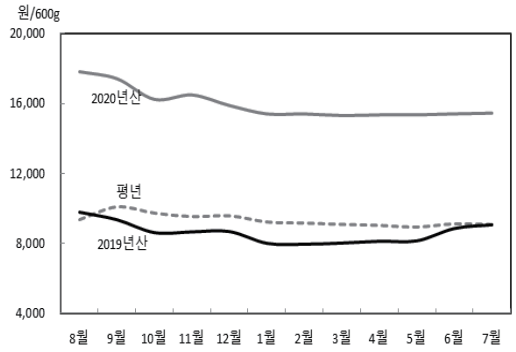
- 2021년 가을양배추 재배(의향)면적 691h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4.2%, 2.8% 증가)

* 전년 출하기(11~12월) 가격 높아 재배의향 증가, 주요 대체작목은 마늘, 양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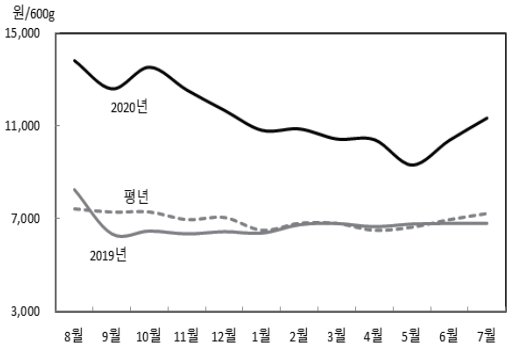
3. 양념채소[3)]

3.1. 건고추

화건 도매가격 동향(상품)



화건 산지가격 동향(상품)



주 1. 평년 가격은 2015년 8월~2020년 7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이며, 8월 가격은 햇건고추 가격 기준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안동농협 고추공판장

- 2021년 2분기 동향
  - 2분기 건고추 도매 및 산지가격(상품 화건 600g기준)은 공급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4%, 49% 높으나 정부의 비축물량 판매로 전 분기와 보합세 유지

    * 2020년산 도매가격(원/600g): (21년 1분기) 15,377 → (21년 2분기) 15,374
      산지가격(원/600g): (21년 1분기) 10,700 → (21년 2분기) 10,022

    * 2/4분기 도매가격(원/600g): (금년) 15,374, (전년) 8,369, (평년) 9,001
      산지가격(원/600g): (금년) 10,022, (전년) 6,730, (평년) 6,6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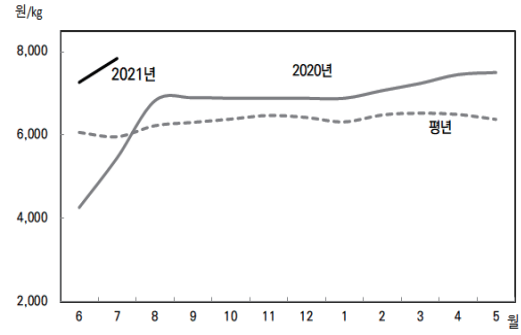
- 2021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건고추 산지 가격(상품 화건 600g기준)은 정부의 비축물량 판매 중단에 따른 재고 부족 등으로 2분기 대비 13% 상승
  - 3분기 건고추 가격은 2021년산 생산 증가가 예상되어 2분기 대비 하락 예상

3)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노호영 전문위원(rhy81@krei.re.kr), 신성철 (ssc0729@krei.re.kr), 조남욱(ukjo@krei.re.kr), 홍승표(cfc8214@krei.re.kr), 양진석(mozzi@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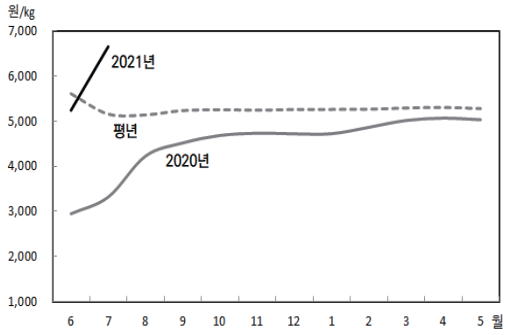
- 2021년산 건고추 생산량 전년 대비 증가 예상
  - 2021년산 건고추 재배면적은 2020년산 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년 대비 4% 내외 증가 전망
  - 건고추 생육은 기상 호조로 전년 대비 양호

3.2. 마 늘

깐마늘 도매가격 동향(상품)



난지형 마늘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이며, 평년 가격은 2016년 6월~2021년 5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21년 2분기 동향
  - 깐마늘 평균 도매가격은 2021년산 마늘 생산량 감소로 전년과 평년 동기 대비 각각 79.9% 17.3% 상승
    * 깐마늘 도매가격: (금년) 7,408원/kg, (전년) 4,118원/kg, (평년) 6,313원/kg
    * 월별 도매가격: (4월) 7,453원/kg, (5월) 7,503원/kg, (6월) 7,267원/kg

- 2021년산 마늘 생산 동향
  - 농업관측센터 실측조사결과, 2021년산 마늘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와 단수 감소로 전년 대비 13.9% 적은 31만 3천 톤
    * 2021년산 재배면적은 한지형이 전년 대비 8.5% 감소한 4,757ha, 난지형이 6.9% 감소한 18,771ha
    * 2021년산 마늘의 10a당 수확량은 잦은 기상변동으로 전년 대비 7.1% 감소한 1,330kg

2021년산 마늘 생산량

단위: ha, kg/10a, 톤, %

연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1	23,528	1,330	312,996
2020	25,372	1,432	363,432
평년	25,975	1,272	330,370
전년 대비	-7.3	-7.1	-13.9
평년 대비	-9.4	4.6	-5.3

주: 2021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조사결과임.
자료: 통계청

- 2021년산 난지형 마늘 저장 동향
  - 표본 조사치와 모형 분석치를 감안한 2021년산 난지형 마늘 입고량은 9만 4,761~9만 5,690톤으로 전년 대비 10.6~11.4% 감소 전망
    * 농업관측센터 저장·가공업체 표본 조사결과(7. 20.), 2021년산 난지형 마늘 입고량은 전년 대비 11.4% 감소
    * 농업관측센터 입고량 모형 분석결과, 2021년산 난지형 마늘 입고량은 전년 대비 10.6% 감소
  - 2021년산 난지형 마늘 평균 입고가격은 남도종 4,500~4,800원/kg, 대서종 4,500~5,000원/kg으로 전년 대비 상승

2021년산 난지형 마늘 추정 입고량

단위: 톤, %

연산	2021	2020	전년 대비
표본 조사치	94,761	106,175	−11.4
모형 추정치	95,690	106,175	−10.6

자료: 농업관측센터, 7월 20일 저장·가공업체 표본 조사치 및 모형 추정치

- 2021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깐마늘 도매가격은 2021년산 마늘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43.8% 높은 7,841원/kg
  - 8~9월 마늘 가격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과 7월 대비 높을 전망
- 2022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 2021년 대비 증가
  - 2022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24,291ha 추정
    * 품종별로 한지형이 전년 대비 1.4% 감소, 난지형은 4.4% 증가 (난지형 중 대서종 6.3%, 남도종 1.7% 증가)

2022년산 마늘 추정 재배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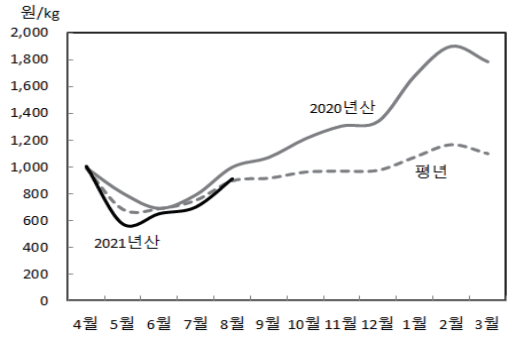
단위: ha, %

연산	한지형	난지형	전체
2022	4,689	19,601	24,291
2021	4,757	18,771	23,528
평년	5,196	20,779	25,975
전년 대비	−1.4	4.4	3.2
평년 대비	−9.7	−5.7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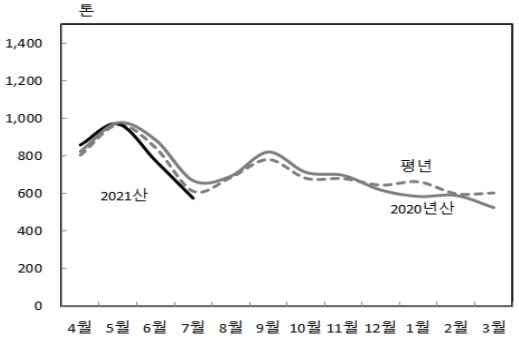
주: 2021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치임.
자료: 농업관측센터

3.3. 양파

양파 도매가격 동향(상품)



양파 반입량 동향



주: 평년 자료는 2016년 4월~2021년 3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 기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21년 2분기 동향
  - 2분기 양파 평균 도매가격은 양파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10.4% 낮은 상품 kg당 744원
    * 양파 도매가격: (금년) 744원/kg, 830(전년) 원/kg, (평년) 787원/kg
    * 월별 도매가격: (4월) 1,005원/kg, (5월) 574원/kg, (6월) 651원/kg
- 2021년산 양파 생산 동향
  - 농업관측본부 실측조사결과 2021년산 양파 생산량은 재배면적 증가로 전년보다 2.2% 증가한 137만 톤
    * 양파 재배면적 전년 대비 3.4% 증가, 단수 전년 대비 1.1% 감소
  - 품종별로 조생종양파는 전년 대비 6.9% 증가한 21만 7천 톤, 중만생종양파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115만 2천 톤

2021년산 양파 생산량

단위: ha, 천톤, %

연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1	18,532	7,390	1,370
2020	17,930	7,474	1,340
평 년	20,404	6,796	1,387
전년 대비	3.4	-1.1	2.2
평년 대비	-9.2	8.7	-1.2

자료: 농업관측센터 조사치, 통계청

- 2021년산 양파 저장 동향
  - 표본 조사치와 모형 분석치를 감안한 2021년산 중만생종양파 입고량은 68만 4천~71만 5천 톤으로 전년 대비 1.8~6.4% 증가 전망
    * 농업관측센터 저장·가공업체 표본 조사결과(7. 20.), 2021년산 중만생종양파 입고량은 전년 대비 6.4% 증가
    * 농업관측센터 입고량 모형 분석결과, 2021년산 중만생종양파 입고량은 전년 대비 1.8% 증가
  - 2021년산 중만생종양파 평균 입고가격은 550~600원/kg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

2021년산 중만생종양파 추정 입고량

단위: 천 톤, %

연산	2021	2020	전년 대비
표본 조사치	715	672	6.4
모형 추정치	684	672	1.8

자료: 농업관측센터, 7월 20일 저장·가공업체 표본 조사치 및 모형 추정치

- 2021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상품 kg당 평균 도매가격은 700원으로 전년(791원) 대비 하락
  - 8월 상품 kg당 평균 도매가격은 2021년산 생산량 증가소로 전년(998원)보다 낮을 전망

- 2022년산 양파 재배의향면적 2021년 대비 감소
  - 2022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4.6% 감소한 17,674ha 추정
    * 품종별로 조생종이 전년 대비 1.8% 감소, 중만생종은 5.2% 감소

2022년산 양파 추정 재배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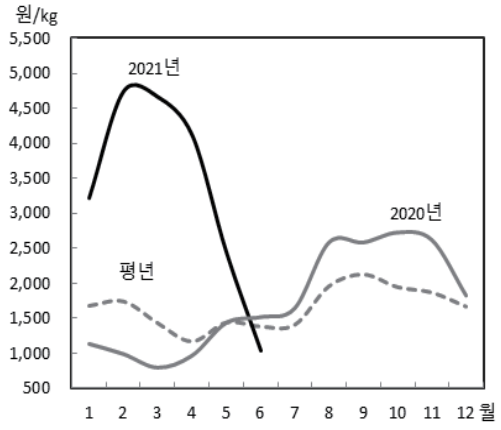
단위: ha, %

연산	조생종	중만생종	전체
2022	2,885	14,789	17,674
2021	2,939	15,593	18,532
평년	2,880	17,524	20,404
전년 대비	−1.8	−5.2	−4.6
평년 대비	0.2	−15.6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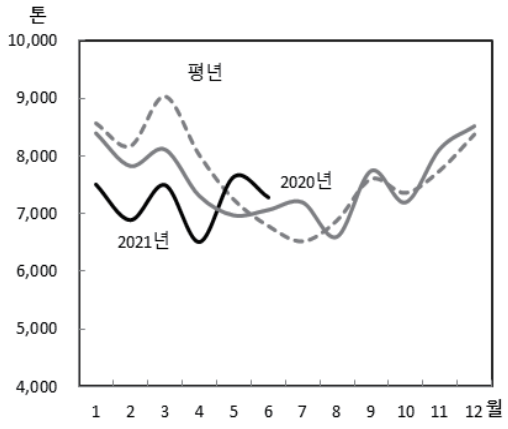
주: 2021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치임.
자료: 농업관측센터

3.4. 대파

대파 도매가격 동향(상품)



대파 반입량 동향



주: 평년 자료는 2016년 1월~20120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21년 2분기 동향
  – 대파 2분기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2,526원(중품 2,188원)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94.3, 90.8% 상승
    * (금년) 2,526원/kg, (전년) 1,300원, (평년) 1,324원
    * (4월) 4,117원/kg, (5월) 2,432원, (6월) 1,028원
  – 대파 2분기 가격은 전남지역 겨울대파 작황 부진으로 4월까지 가격이 크게 높았으나, 이후 봄대파 재배면적 증가로 가격 하락

• 2021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대파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주산지인 경기지역 노지대파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44.3% 하락한 913원
  – 3분기 생산량은 강원지역 대파 재배면적이 증가하였고, 작황이 양호하여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
  – 3분기 가격은 강원지역 대파 출하량 증가 및 경기지역 출하대기면적 증가로 전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

강원지역 지역별 고랭지대파 재배면적

단위: %

구분	강릉	철원	평창	홍천	양구	전체
전년 대비	13.8	14.2	9.0	13.3	25.0	12.2

자료: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 결과(7. 20.)

  – 전남지역 대파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조사
    * 금년 겨울대파 출하기 가격 상승으로 재배면적 증가

전남지역 겨울대파 재배면적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연산		재배면적
2021		3,344
2020		2,986
평년		3,192
증감률	전년	12.0
	평년	4.8

자료: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전남도청

전남지역 지역별 겨울대파 재배면적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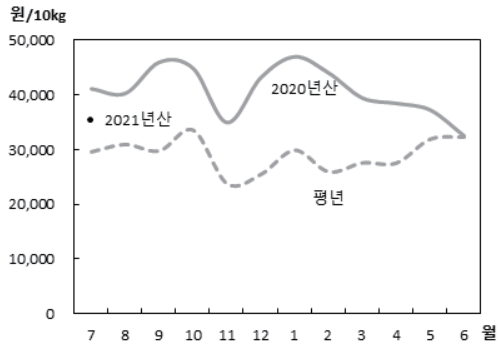
구분	신안	진도	영광	기타	전체
전년 대비	10.2	5.8	24.4	33.1	12.0

자료: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전남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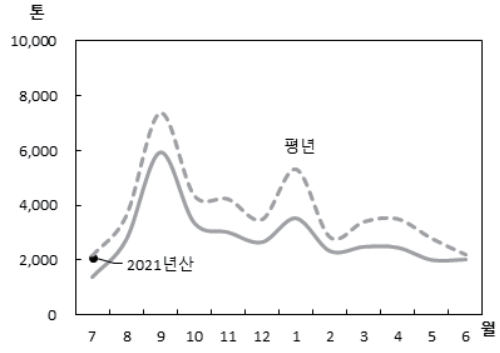
4. 과일[4)]

4.1. 사과

사과 도매가격 동향(상품)



사과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6~20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7~8월 쓰가루, 9월 홍로, 10월 양광, 11월 이후 후지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

- 2021년 2분기 동향
  - 4~5월 후지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상품)은 반입량 감소로 전년 대비 17% 상승한 3만 7,900원/10kg이었음.
  - 6월 도매가격은 반입량 증가로 전년 대비 20% 하락한 3만 2,500원/10kg이었음. 산지유통인과 일부 저장농가에서 출하시기를 6월 이후로 늦춘 물량이 많아 반입량이 증가함.
- 2021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후지 도매가격은 2020년산 저장사과 반입량 증가로 전년 대비 46% 하락한 3만 5,100원이었음.
  - 8~9월 햇사과 출하량은 2021년산 사과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각각 9%, 5% 증가할 전망임. 8월 하순부터 추석 성수품 출하가 이뤄지겠으며, 추석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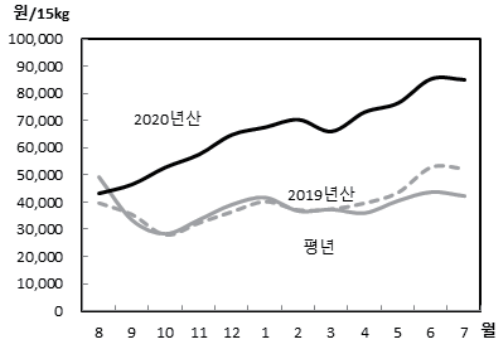
4)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원태 전문위원(wtkim@krei.re.kr), 이미숙(lms1214@krei.re.kr), 이혜인(hyen@krei.re.kr), 윤성욱(yunsw@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전년보다 빨라 홍로 이외 품종의 추석 출하는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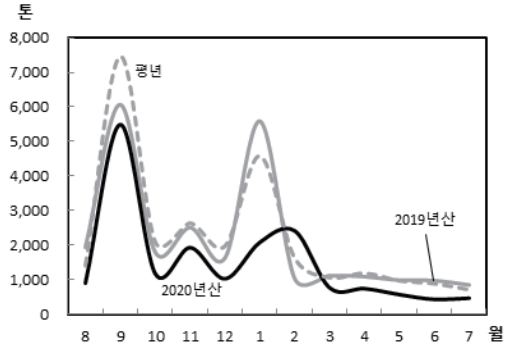
- 2021년 생산량 전망
  - 사과 생산량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47만 4천 톤 내외로 전망됨.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6% 확대되었고, 병 발생이 많았던 전년 대비 작황이 양호하여 단수가 6%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품종별로는 홍로 생산량 전년 대비 6%, 후지 15% 증가할 전망임.

4.2. 배

배 도매가격 동향(상품)



배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5~2019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8월 원황, 9월 이후 신고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

- 2021년 2분기 동향
  - 2분기 신고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상품)은 반입량 감소(전년 대비 44%)로 전년 대비 96% 높은 7만 8,200원/15kg이었음.
- 2020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신고 평균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101% 상승한 8만 5,000원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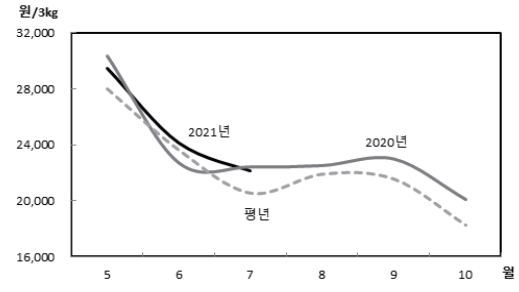
- 8월 원황(조생종) 출하량은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금년 햇배 품질은 기상 호조로 정형과 비율 전년 대비 높고, 당도도 높은 것으로 예측됨. 추석 성수기에 신고 배를 출하하기 위해 과 비대가 원활하도록 생육을 관리하는 농가가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 2021년 생산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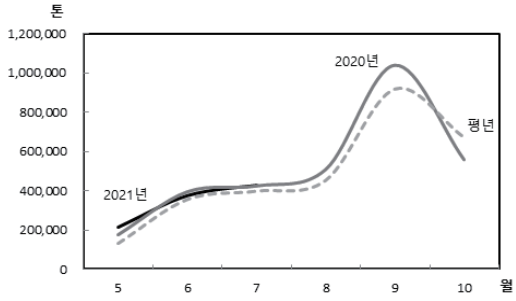
- 2021년 배 생산량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18만 4천 톤 내외로 전망됨.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8% 늘었고, 착과수 및 봉지수 증가로 생육이 원활하여 단수도 전년 대비 2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금년은 기형과와 유체과(숫배) 발생이 많았던 전년 대비 정형과 및 상품과 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

4.3. 감귤

감귤 도매가격 동향 (상품)



감귤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6~20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하우스온주(3kg)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

• 2021년 2분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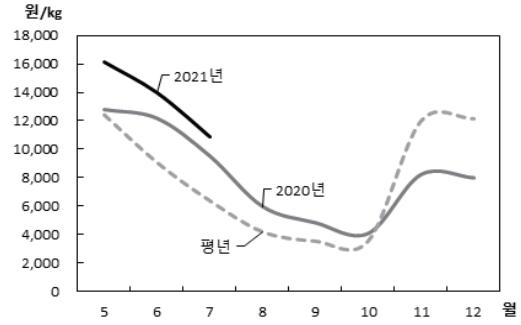
- 5월 하우스온주 도매가격(가락시장/상품)은 반입량 증가로 전년 대비 4% 하락한 2만 9,100원/3kg이었음.
- 6월 하우스온주 도매가격은 출하량이 증가했으나, 도매시장 외 거래량 증가

로 시장 반입량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6% 상승한 2만 4,100원/3kg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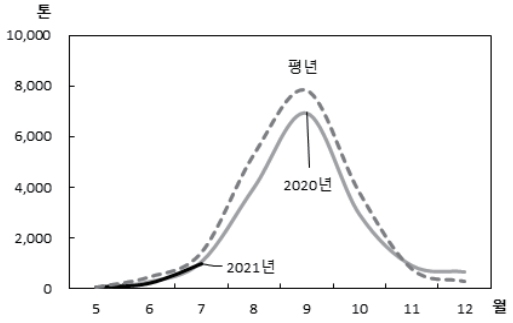
- 2021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하우스온주 도매가격은 전년과 비슷한 2만 2,100원/3kg이었음. 7월 상순 가격은 반입량 감소로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중순 이후 반입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함.
  - 8월 하우스온주 출하량은 후기가온 및 무가온 재배면적이 늘어 전년 대비 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9월 이후에도 재배면적 확대로 전년 대비 8%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2021년 노지온주 착과수
  - 노지온주 단위면적(10a)당 착과수는 전년 대비 5% 감소함. 지역별로 제주시는 해거리현상으로 전년 대비 20% 감소한 반면, 서귀포시는 3% 증가함.

4.4. 포도

포도 도매가격 동향(상품)



포도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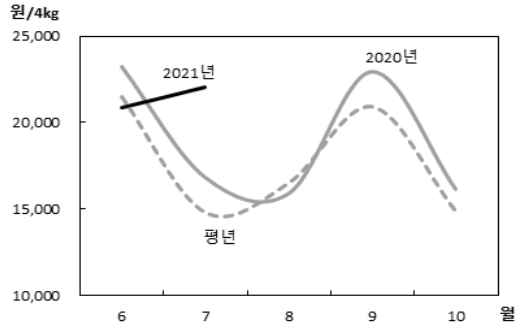


주: 1) 평년은 2016~20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5월 델라웨어(2kg), 6~7월 거봉(2kg), 8~10월 캠벨얼리(3kg, 2016~18년은 5kg), 11~12월 샤인머스켓(2kg)을 kg으로 환산함.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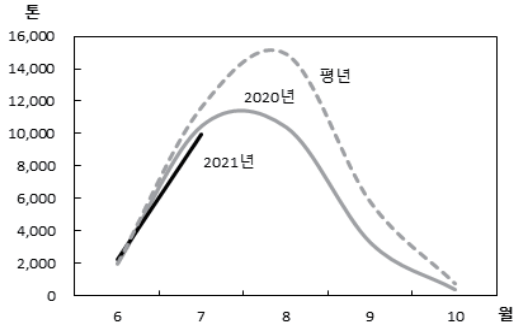
- 2021년 2분기 동향
  - 5~6월 델라웨어, 거봉, 캠벨얼리 평균 도매가격은(가락시장/상품)은 전년 대비 상승하였음. 이는 샤인머스캣으로의 품종 전환이 많아 반입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5~6월 델라웨어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26% 상승한 26,900원/2kg, 6월 거봉 가격은 15% 상승한 27,900원/2kg, 6월 캠벨얼리는 32% 상승한 17,800원/2kg임.
- 2021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캠벨얼리와 거봉 가격은 반입량 감소로 전년 대비 상승, 샤인머스캣 가격은 반입량 증가로 하락함.
  - 8~9월 캠벨얼리와 거봉 출하량은 노지 재배면적 축소에 의해 전년 대비 감소하겠고, 샤인머스캣 출하량은 재배면적 증가로 전년 대비 증가할 전망임.
- 2021년 생산량 전망
  - 포도 생산량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15만 4천 톤 내외로 전망됨.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1% 증가하였고, 긴 장마 영향으로 병 발생이 많았던 전년 대비 작황이 양호하여 단수가 1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품종별로는 캠벨얼리와 거봉 생산량 전년 대비 각각 16%, 14% 감소, 샤인머스캣은 71% 증가할 전망임.

4.5. 복숭아

복숭아 도매가격 동향(상품)



복숭아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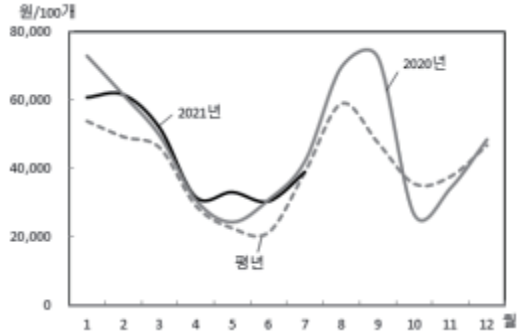
주: 1) 평년은 2016~20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2) 도매가격은 6월 천도(5kg), 7월 백도, 8월 천중도, 9월 장호원황도(엘버트) 기준임.
3) 2021년 이전 백도, 천중도, 장호원황도(엘버트) 가격은 4,5kg을 4kg으로 환산한 가격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

- 2021년 2분기 동향
  - 6월 천도 도매가격(가락시장/상품)은 반입량 증가로 전년 대비 10% 하락한 2만 800원/5kg이었음. 이른 개화로 출하가 앞당겨졌고, 전년 대비 저온피해 적어 반입량 증가함.
- 2021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선프레(천도계) 도매가격은 반입량 증가로 전년 대비 20% 하락한 2만 400원/10kg이었고, 백도(유모계)는 반입량 감소와 소포장 전환(4,5kg → 4kg)으로 인한 단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31% 상승한 2만 2,100원/4kg이었음.
  - 8월 출하량은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품종별로는 천도계는 전년 대비 3%, 유모계는 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2021년 생산량 전망
  - 복숭아 생산량은 전년 대비 4% 증가한 18만 톤 수준으로 전망됨.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5% 감소하였으나, 생육상황이 양호하여 단수가 9%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품종별로는 천도계, 유모계 생산량 전년 대비 각각 6%, 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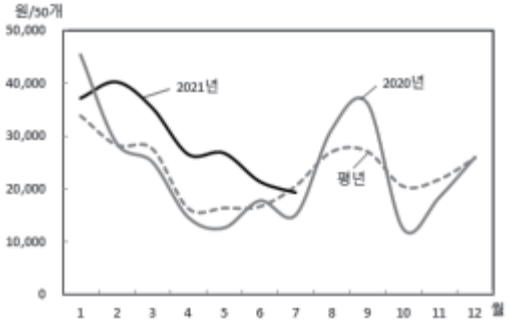
5. 과채[5)]

5.1. 오이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취청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평년은 2016~2020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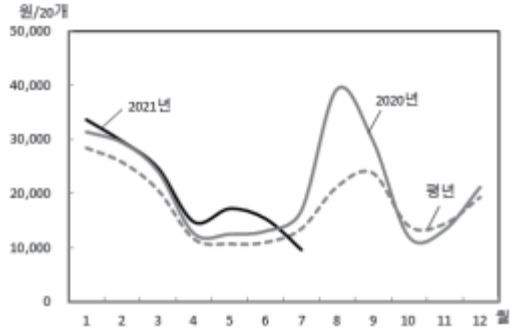
- 2021년 2분기 동향
  - 백다다기오이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4월 31,700원/100개, 5월 33,200원, 6월에는 30,600원이었음. 2분기 평균가격은 31,800원/100개로 전년 동기보다 11% 상승하였음.
  - 2분기 백다다기오이 반입량은 주산지의 일조량 부족, 기온 하락 등으로 작황이 부진하여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하였음.
  - 취청오이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4월 26,500원/50개, 5월 26,700원, 6월은 21,300원이었음. 2분기 평균가격은 24,900원/50개로 전년 동기보다 65% 상승하였음.
  - 2분기 취청오이 반입량은 주 출하지의 재배면적 감소, 바이러스로 작황이 부진하여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하였음.

5)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김원태 전문위원(wtkim@krei.re.kr), 김명은(mekim@krei.re.kr), 최선우(opendoyon@krei.re.kr), 김환희(whee0201@krei.re.kr), 문지혜(mjh91@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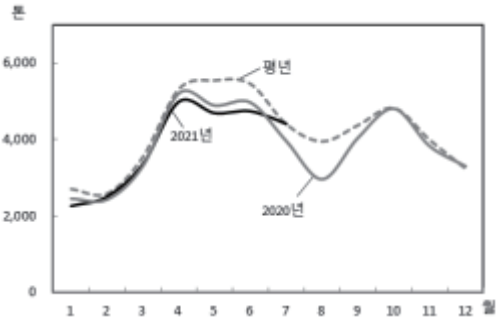
- 2021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반입량 증가로 전년 동월보다 8% 낮은 39,100원/100개이었음. 7월 취청오이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반입량 감소로 전년 동원 대비 27% 높은 19,200원/50개이었음.
  - 8월 백다다기오이 출하량은 주 출하지인 강원, 충청지역의 작황이 좋아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취청오이는 재배면적이 감소하였으나, 생육이 양호하여 전년 대비 증가할 전망임.
  - 9월 백다다기오이 출하면적은 강원지역의 타 작목 전환, 일손 부족에 따른 재배면적 감소로 전년 대비 감소하나, 충남 천안에서 전년 대비 이른 정식으로 출하면적이 증가하여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됨. 취청오이는 타 작목으로 전환되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5.2. 애호박

애호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애호박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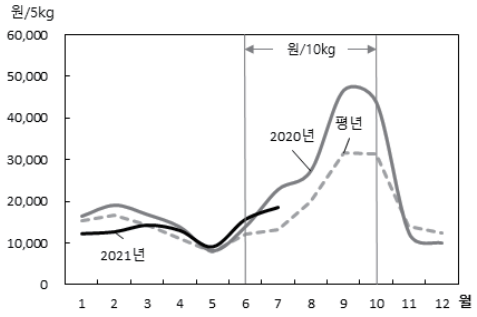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6~2020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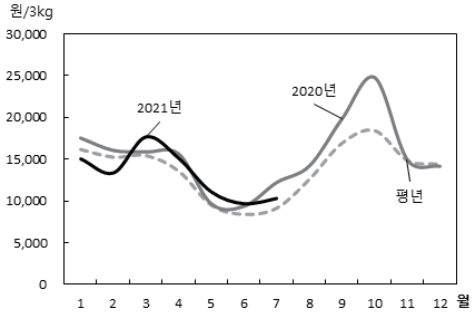
- 2021년 2분기 동향
  - 애호박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4월 14,800원/20개, 5월 17,200원, 6월에는 15,400원이었음. 2분기 평균가격은 15,800원/20개로 전년 동기보다 25% 상승하였음.
  - 2분기 애호박 반입량은 주 출하지의 일조량 부족, 기온 하락으로 작황이 부진하여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하였음.
- 2021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애호박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강원지역의 재배면적 증가와 기상여건 양호로 반입량이 증가하여 전년 동월 대비 42% 낮은 9,600원/20개이었음.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소비가 부진하여 전년 대비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었음.
  - 8월 애호박 출하량은 주 출하지인 강원지역의 재배면적 증가와 기상 여건 양호 등으로 작황이 좋아 전년 대비 증가할 전망임.
  - 9월 애호박 출하면적은 강원지역의 재배면적 증가와 충청지역에서 작목 전환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5.3. 토마토

일반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대추형 방울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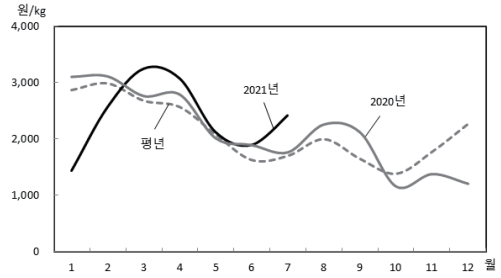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6~2020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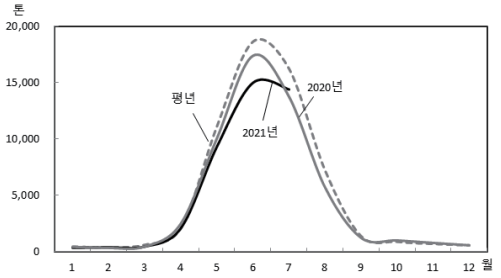
- 2021년 2분기 동향
  - 일반토마토 4월 가격(가락시장, 상품)은 재배면적 증가로 반입량이 늘어(19%) 전년 대비 6% 하락한 13,100원/5kg이었음. 5월은 9,200원/5kg, 6월은 15,800원/10kg으로 전년 대비 평균 12% 상승하였는데, 5~6월 반입량 소폭 증가(0.5%)에도 불구하고 유통업체 행사로 소비가 원활하였기 때문임.
  - 대추형방울토마토 4월 가격은 주산지 작황 호조로 반입량이 증가(20%)하여 전년 대비 3% 하락한 15,100원/3kg이었음. 5월은 11,100원/3kg, 6월은 9,600원/3kg으로 전년 대비 각각 15%, 3% 상승함. 이는 주산지 기상 악화에 따른 생육 지연으로 반입량이 감소(-3%)하였기 때문임.
- 2021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일반토마토 도매가격은 짧은 장마로 출하량이 늘면서 전년 대비 19% 하락한 18,600원/10kg이었음.
  - 8~9월 일반토마토 출하량은 재배면적 증가와 작황 호조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7월 대추형방울토마토 도매가격은 반입량 증가로 전년 대비 16% 낮은 10,300원/3kg이었음.
  - 8~9월 대추형방울토마토 출하량은 재배면적 늘었고,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전년 대비 작황도 양호하여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5.4. 수박

수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수박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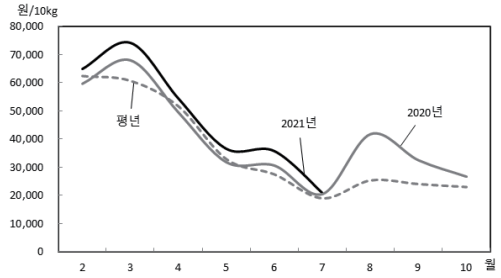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6~2020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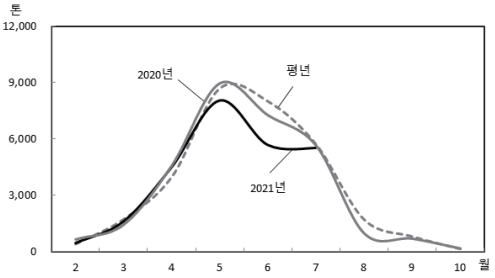
- 2021년 2분기 동향
  - 수박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기준 4월 3,070원/1kg, 5월 2,120원/1kg, 6월 1,900원/1kg이었음. 2분기 평균가격은 전년(2,240원) 대비 6% 상승한 2,360원/1kg이었음.
  - 수박 2분기 반입량은 재배면적이 줄어 전년 대비 12% 감소하였음.
- 2021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수박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전년(1,770원) 대비 37% 상승한 2,420원/1kg이었음.
  - 8월 수박 출하량은 일조량 증가와 병해충 발생 감소로 작황이 양호하여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9월 출하면적은 충청·호남지역에서 타 작목으로 전환한 농가가 늘고, 영남지역에서 노동력 부족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재배면적이 줄어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5.5. 참외

참외 도매가격 동향(상품)



참외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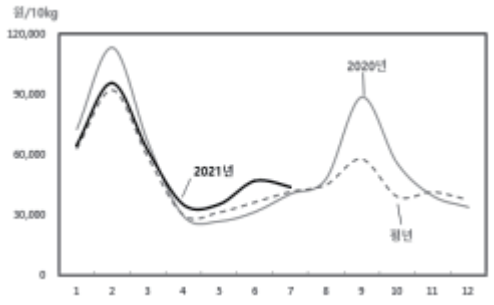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6~2020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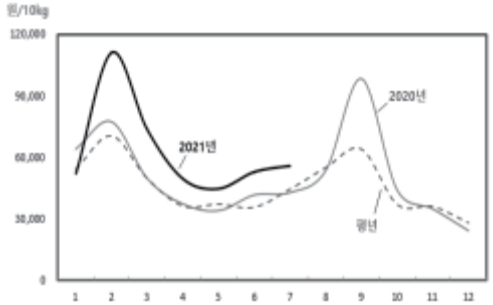
- 2021년 2분기 동향
  - 참외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기준 4월 54,400원/10kg, 5월 36,500원/10kg, 6월 35,700원/10kg이었음. 2분기 평균가격은 전년(37,300원) 대비 13% 상승한 42,200원/10kg이었음.
  - 참외 2분기 반입량은 생육 부진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하였음.
- 2021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참외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반입량이 전년 대비 2% 감소하여 2% 상승한 상품 기준 20,900원/10kg이었음.
  - 8~9월 참외 출하량은 기상 여건 양호로 단수 증가가 예측되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5.6. 풋고추

청양계풋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일반풋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평년은 2016~2020년의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21년 2분기 동향
  - 청양계풋고추 도매가격(상품/가락시장)은 4월 35,000원/10kg, 5월 35,200원/10kg, 6월 46,900원/10kg이었음. 2분기 평균가격은 전년(29,200원) 대비 34% 높은 39,000원/10kg이었음.
  - 청양계 풋고추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잦은 비로 인한 일조부족과 바이러스, 병해 발생이 증가하여 작황이 전년 대비 부진했기 때문임.
  - 일반풋고추 도매가격(상품/가락시장)은 4월 49,600원/10kg, 5월 44,800원/10kg, 6월 52,900원/10kg이었음. 2분기 평균가격은 전년(37,700원) 대비 30% 높은 49,100원/10kg이었음.
  - 일반풋고추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경남과 충남지역에서 청양계 및 오이맛고추로 전환하면서 재배면적이 감소하였고 잦은 비로 인한 일조부족과 바이러스, 병해 발생으로 작황이 부진했기 때문임.
- 2021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청양계풋고추 도매가격(상품/가락시장)은 전년 대비 8% 높은 43,800원/10kg이었음. 7월 일반풋고추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31% 높은 55,900원/10kg이었음.

- 청양계풋고추 시세가 전년 대비 상승한 이유는 6월의 잦은 비로 일조량이 부족하여 작황이 양호했던 작년 대비 단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일반풋고추는 충남과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면적이 감소였고, 작황이 부진하여 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하였음.
- 8월 청양계풋고추 출하량은 강원지역 재배면적이 늘었고 작황도 양호하여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일반풋고추는 재배면적은 감소하였으나 단수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9월 청양계풋고추 출하면적은 강원지역의 재배면적이 늘어 전년 대비 증가하나, 일반풋고추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6. 축산[6)]

6.1. 한육우

- (한육우) 2021년 2/4분기 동향
  - 6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가격 상승세 지속에 따른 농가의 입식의향 증가로 암소 도축이 지연되어 3월(337만 3천 마리)보다 4.0% 증가한 350만 8천 마리였음(전년 동월 338만 3천 마리보다 3.7% 증가).
    * 6월 한우 사육 마릿수 334만 3천 마리, 육우 16만 5천 마리
    * 가임암소 마릿수 156만 마리(전년 동월 149만 마리보다 5.0% 증가)
  - 2/4분기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전 분기 20,414원/지육kg보다 4.3% 상승한 21,301원이었음(전년 동기 20,041원보다 6.3%, 평년 동기 18,182원보다 11.7%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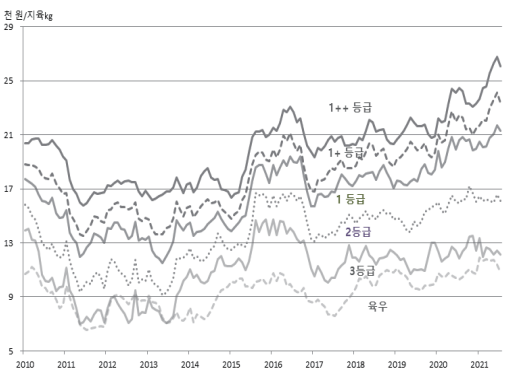
한육우 사육 마릿수 추이

단위: 천 마리, 천 가구

구분	20년				21년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p
사육 농장 수	94	93	93	93	93	93
총 마릿수	3,197	3,383	3,435	3,395	3,373	3,508
가임 암소	1,462	1,487	1,551	1,555	1,532	1,562

주: 2021년 6월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한육우 등급별 도매가격 추이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6)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이형우 전문연구원(lhw0906@krei.re.kr), 지선우(bsn02@krei.re.kr), 강지석(jskang@krei.re.kr), 김충현(goldbl@krei.re.kr), 김형진(junjang00@krei.re.kr), 김서영(ksy1208@krei.re.kr), 임효빈(hyobin@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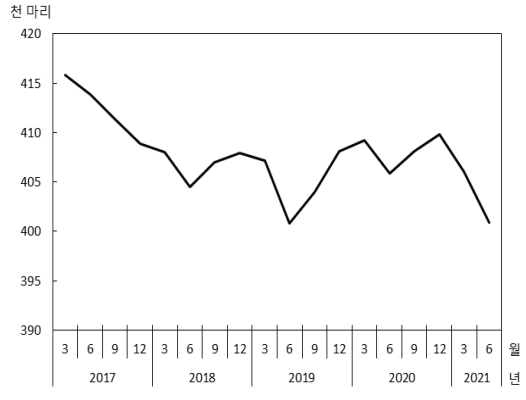
- (한우) 2021년 3/4분기 전망
  - 9월 한우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327만 2천 마리)보다 4.9% 증가한 343만 3천 마리로 전망됨.
  - 3분기 한우 도매가격은 전년과 평년보다 상승한 21,000~22,000원으로 전망됨.

한우 사육 마릿수 및 도매가격 전망

	2020년(A)	2021년	2021년(B)	B/A
사육 마릿수	9월 327만 2천 마리	6월 334만 4천 마리	9월 343만 3천 마리	4.9%
1등급 도매가격 (지육kg)	3분기 20,387원	2분기 21,301원	3분기 21,000~22,000원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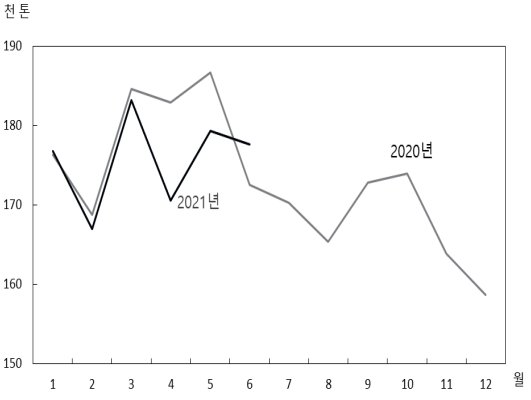
6.2. 젖소

사육 동향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원유 생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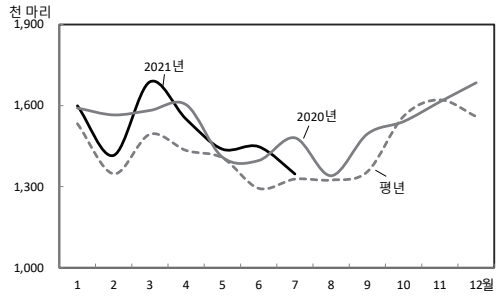


자료: 낙농진흥회

- 2021년 2/4분기 동향
  - 2021년 6월 젖소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1.2% 감소한 40만 1천 마리
  - 2분기 원유 생산량은 전년 대비 2.7% 감소한 52만 8천 톤
- 2021년 3/4분기 전망
  - 2021년 9월 젖소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0.4~0.9% 감소한 40만 4천~40만 6천 마리
  - 3분기 원유 생산량은 전년보다 1.4~2.0% 감소한 49만 7천~50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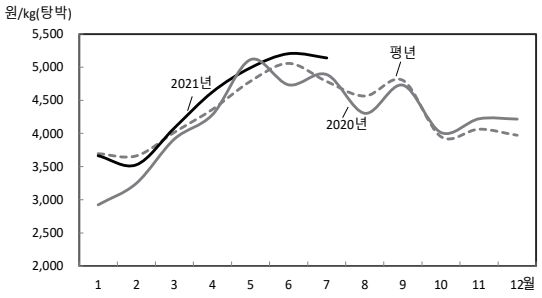
6.3. 돼지

등급판정 마릿수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도매가격 동향



주: 평년은 2015~2019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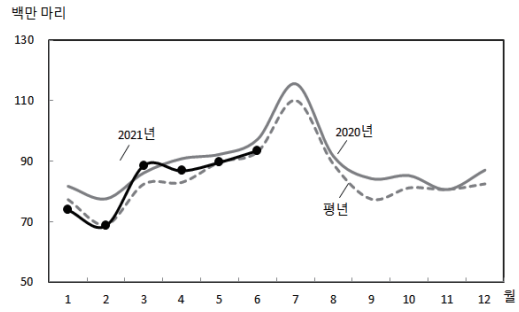
- 2021년 2/4분기 동향
  - 2021년 6월 모돈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 대비 0.9% 증가한 97만 7천 마리, 돼지 전체 사육 마릿수는 자돈 증가(2.7%)로 전년 동월 대비 0.8% 증가한 1,175만 마리(이력제)
  - 2/4분기 등급판정 마릿수는 저지방 부위에 대한 수입 오퍼 가격 상승에 따른 육류가공업체의 국내산 돼지고기 사용 비중 증가 영향으로 전년 동기간(441만 마리) 대비 0.6% 증가한 444만 마리

- 2/4분기 돼지 도매가격은 행락철 수요 증가, 수입량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간(4,688원/kg) 대비 5.3% 상승한 4,936원/kg

• 3/4분기 동향 및 전망
- 3/4분기 도축 마릿수는 9월 작업일수 감소, 7~8월 폭염일수 증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3.6% 감소한 416만 마리 전망
- 3/4분기 수입량은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이 전년 대비 높으며, 벨기에산 돼지고기 수입 재개 등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한 7만 8천 톤 수준 전망
- 3/4분기 중 7월 도매가격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폭염 영향으로 가정 내 수요 증가로 5,138원/kg이었으며, 8~9월은 국민 상생 지원금 지급에 따른 기대 수요 증가, 명절 수요 등으로 전년(4,536원/kg) 대비 상승한 4,700~4,900원/kg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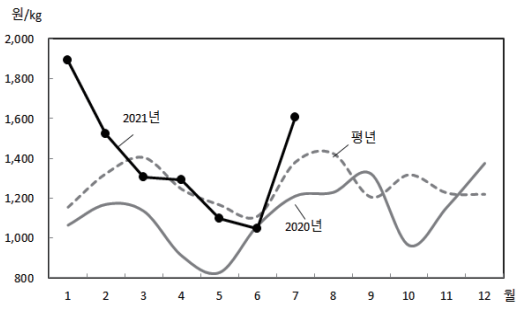
6.4. 육계

도계 마릿수 추이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육계 산지가격 동향



주: 평년은 2016~2020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생계유통가격)

• 2021년 2/4분기 동향
- 2분기 육용 종계 성계 사육 마릿수는 종계 도태 증가로 전년보다 1.6% 감소한 461만 마리(6월 말일 기준)
- 2분기 도계 마릿수는 병아리 생산 감소로 전년 대비 3.7% 감소한 2억 7

천만 마리, 평년 대비 1.5%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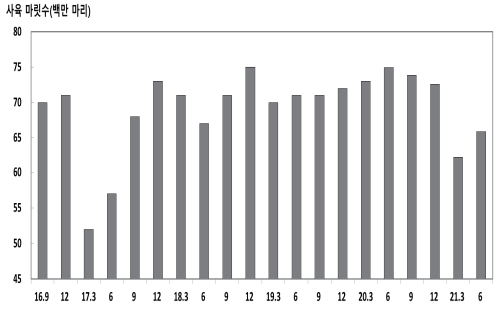
- 2분기 평균 육계 산지 가격은 도계 감소로 공급과잉이었던 전년 대비 22.8% 상승한 1,180원/kg, 평년 대비 2.9% 하락

• 2021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3분기 병아리 생산량은 종계 성계 도태 증가로 전년보다 적으나, 1분기 입식된 종계가 생산에 가담하며 점진적인 증가세 예상
- 3분기 도계 마릿수는 병아리 생산 증가로 전년보다 6.0% 적은 2억 8천6백만 마리, 평년 대비 2.5% 감소
- 7월 육계 산지 가격은 도계 감소와 수요증가로 공급과잉이었던 전년 대비 32.3% 상승한 1,607원/kg, 8월 육계 산지 가격은 도계 감소로 전년 대비 상승한 1,400~1,600원/kg, 9월은 전년 수준인 1,200~1,400원/kg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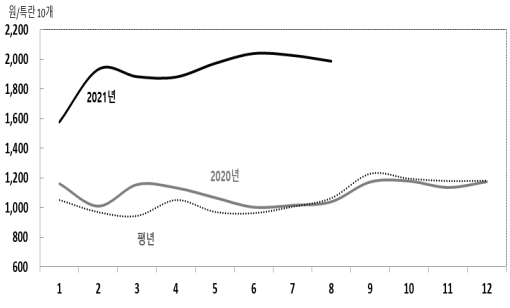
6.5. 산란계

산란계 사육현황



자료: 통계청

계란 산지가격 동향



주: 평년은 2016~2020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협중앙회(2018년 이전), 축산물품질평가원(2019년)

• 2/4분기 동향

-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2.1%, 4.4% 감소한 6,587만 마리이며, 6개월령 이상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 및 평년 대비 10.4%, 7.7% 감소한 4,846만 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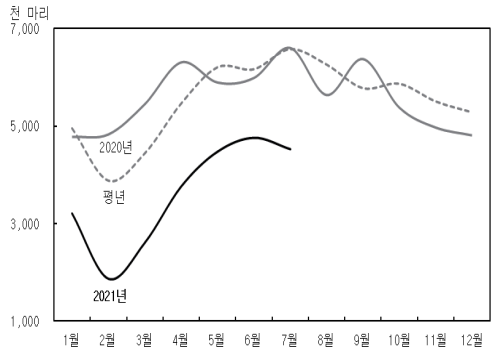
- 6월 산란용 배합사료 생산량은 전년 대비 4.9% 감소하였으나, 평년 대비 4.6% 증가한 21만 톤. 그 중 산란초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4.3%, 산란 중기는 12.2% 감소하였으나, 산란 말기는 9.6% 증가
- 2분기 실용계 입식 마릿수는 전년 및 평년 대비 1.4%, 7.0% 감소한 1,068만 마리, 성계 도태 마릿수는 전년 및 평년 대비 72.5%, 63.8% 감소한 299만 마리
- 산란 성계 도태 마릿수는 감소하였으나, 실용계 입식 마릿수가 줄어 2분기 사육 마릿수는 전년 및 평년 대비 감소
- 2분기 농협 주요매장(66개소) 계란 판매량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 7월(18일까지) 판매량 전년 동기 대비 28.7%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내 계란 소비 증가 추정
- 4~6월 계란 평균 산지가격은 계란 생산량 감소 및 가정내 소비 증가로 전년 대비 83.6% 상승한 1,963원(특란 10개, 축산물품질평가원)

• 3/4분기 동향 및 전망

- 8~9월 6개월령 이상 산란용 닭 마릿수는 1분기 입식이 증가와 산란 성계 도태 마릿수 감소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
- 계란 생산량 감소로 8~9월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상승할 전망
  (7월: 2,025원/특란 10개, 8~9월: 1,700~1,9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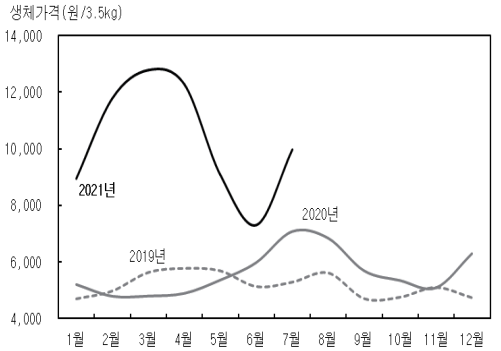
6.6. 오리

오리 도압 마릿수



주: 평년은 2016~2020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오리 생체 가격 동향



주: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2018년 3월부터 오리 산지가격을 공시하고 있으며 평년 자료는 없음.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2021년 2/4분기 동향
  - 6월 오리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19.1% 감소한 752만 8천 마리, 육용오리와 종오리는 전년 대비 각각 19.7%, 11.8% 감소한 692만 9천 마리, 59만 8천 마리
  - 2분기 도압 마릿수는 HPAI 발생에 따른 사육 마릿수 감소로 2020년 동기 대비 28.4% 감소한 1,301만 1천 마리, 2분기 오리 산지 가격(생체 3.5kg)은 도압 마릿수 감소로 전년 동기보다 77.0% 상승한 9,553원
- 2021년 3/4분기 전망
  - 7~9월 국내 오리 사육마리수는 HPAI 발생으로 종오리 및 육용오리 입식 감소로 전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됨.
  - 8~9월 오리 생체가격은 전년보다 상승한 9,000원/생체 3.5kg 내외로 전망됨.

Ⅳ. 음식점 농축산물 소비 실태[1)]

1. 조사 개요

-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사회·인구 여건 변화와 시장 개방의 가속화 등으로 식생활 습관이 변화하면서 도시가구의 농식품 소비지출에서 외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음식점에서의 농축산물 구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소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분기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조사 대상 응답자 특성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전체		330	100.0
업소유형	한식	149	45.2
	일식	36	10.9
	양식	42	12.7
	중식	43	13.0
	분식	60	18.2
면적	1~100㎡ 이하	235	71.2
	101~300㎡ 이하	65	19.7
	300㎡ 초과	30	9.1
직원수	1~3명 이하	259	78.5
	4~5명 이하	38	11.5
	6명 이상	33	10.0

1)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양지아(jigeumaa@krei.re.kr) 연구원이 「음식점 농축산물 소비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 조사대상 업체는 서울지역의 규모별·업종별 음식점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점업체 330개 패널을 구성함. 유형별로 한식이 45.2%로 가장 많고, 분식 18.2%, 중식 13.0%, 양식 12.7% 등의 순임. 규모별 응답자는 100m^2 이하인 업소가 71.2%로 가장 많고, 101~300m^2 이하 19.7%, 300m^2 초과 9.1% 순으로 나타남.
  - 사업유형별 응답자는 대부분 단독개인점포이며, 직원 수는 3명 이하가 78.5%로 가장 많음.

2. 품목별 농축산물 소비 실태

2.1. 경기 현황 조사

- 2021년 2/4분기 음식업 경기 동향은 2.38(5점 척도)로 전년 동기(2.39)와 비슷한 수준이며, 전 분기(2.49)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음식업 경기 동향(5점 척도 기준)

2020년 2/4분기	2021년 1/4분기	2021년 2/4분기
2.39	2.49	**2.38**

주: 음식업 경기동향은 5점 척도 기준으로 5에 가까울수록 경기 상황이 매우 좋으며, 1에 가까울수록 좋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1년 4~6월 음식업체의 전반적인 경기 상황은 평균적인 상태를 100이라고 가정할 때, 평균 86.8로 나타나 작년 대비 경기 상황은 13.2% 수준 감소함.
- 2021년 3/4분기 음식점 예상 매출은 2021년 2/4분기 상태를 100이라고 가정할 때, 평균 86.9로 나타나 전 분기보다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2.2. 곡류

- 2021년 2/4분기 쌀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2.3% 감소하였고, 전 분기보다 0.4% 증가함.
  - 감자 2/4분기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2.1% 증가하였고, 전 분기 대비 2.0% 증가하였음.

곡류 품목별 3/4분기 월평균 구매량 증감률

단위: %

쌀		감자	
전년 동기 대비	전 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전 분기 대비
−2.3	0.4	2.1	2.0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1년 3/4분기 쌀과 감자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년 동기(2020년 2/4분기)에 비해 각각 7.0%, 2.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곡류 품목별 2/4분기 예상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쌀	감자
−7.0	−2.8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2.3. 채소류

- 2021년 2/4분기 엽근채소류 주요 품목별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하였고, 양념채소류는 3.9% 감소함.
  - 엽근채소와 양념채소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모든 주요 품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채소류 품목별 2/4분기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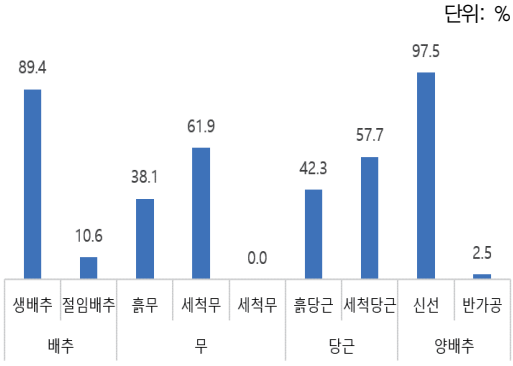
구분	엽근채소	구분	양념채소
배추	-0.6	건고추	-10.3
배추김치	-6.5	고춧가루	-2.0
무	-3.1	마늘	-1.2
당근	-1.6	양파	-5.0
양배추	-0.1	대파	-2.2
소계	-3.1	소계	-3.9

주: 소계는 음식점의 품목별 구매 비중(가중치)을 알 수 없어 단순평균을 낸 결과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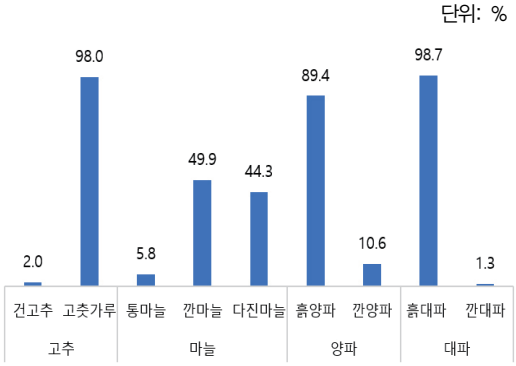
- 음식점업체에서 원물 형태로의 구입을 선호하는 품목은 대파(98.7%), 양배추(97.5%), 생배추(89.4%), 흙양파(89.4%)이며, 무, 당근, 건고추, 마늘의 경우 원물 형태보다 세척하거나 분쇄 과정을 거친 1차 가공 형태의 구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채소류 품목별 구입 형태

〈엽근채소〉



〈양념채소〉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채소류 품목별 원산지 구입 비중

단위: %

구분		2020년 2/4분기		2021년 2/4분기	
		국내산	중국산	국내산	중국산
엽근채소	무	99.4	0.6	99.6	0.4
	배추	97.5	2.5	98.2	1.8
	배추김치	11.2	88.8	30.7	69.3
	당근	58.2	41.8	57.4	42.6
	양배추	88.7	11.3	88.3	11.7
양념채소	건고추	81.6	18.4	83.3	16.7
	고춧가루	53.0	47.0	51.8	48.2
	통마늘	74.1	25.9	85.3	14.7
	깐마늘	58.3	41.7	58.5	41.5
	다진마늘	55.6	44.4	57.8	42.2
	흙양파	90.8	9.2	88.3	11.7
	깐양파	51.7	48.3	42.0	58.0
	대파	99.7	0.3	99.6	0.4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1년 2/4분기 채소류 원산지별 구입 비중을 분석한 결과, 배추김치, 깐양파, 고춧가루의 중국산 비중이 높음.
  - 중국산 구매율은 배추김치(69.3%), 깐양파(58.0%), 고춧가루(48.2%)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대파, 무, 배추는 전체 구매의 98.0% 이상이 국내산으로 다른 채소류에 비해 국산 구매율이 월등히 높음.
  - 배추김치, 통마늘, 다진마늘, 건고추, 배추, 깐마늘, 무는 전년 동기 대비 중국산의 비중이 감소하고 국내산의 비중이 증가함.
- 배추는 대부분 배추김치(완제품) 형태로 수입이 이뤄지는데, 2021년 2/4분기 배추김치를 직접 제조하는 비율은 32.3%이고, 완제품을 구입하는 비율은 54.4%로 완제품의 구입 비율이 더 높음.

- 국내산 배추 또는 김치를 사용하는 경우, 향후 중국산 김치(배추)로 대체하겠다는 응답은 14.4%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현재 중국산 배추 또는 김치를 사용하는 경우, 앞으로 국내산 김치(배추)를 사용하겠다는 응답은 28.5%로 앞으로 중국산보다 국내산 김치(배추)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산 김치 사용량은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76.9%로 나타났으며, 감소하였다는 응답의 비율은 22.4%로 나타남.

-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중국산 김치 소비량이 감소한 이유로는 '중국산 김치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96.9%)'가 가장 높았음.
- 중국산 김치 소비량 감소를 대체하기 위해 시행한 방법으로는 '안 함(46.9%)'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깍두기, 파김치 등 타 김치 제공(21.9%)'으로 나타남.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한 중국산 김치 소비량

단위: %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증가	비슷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감소
0.7	76.9	22.4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중국산 김치 위생 논란 이전과 비교하여 중국산 김치 소비량이 감소한 이유

단위: %

중국산 김치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	단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
96.9	3.1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중국산 김치 소비량 감소를 대체하기 위해 시행한 방법

단위: %

안 함	깍두기, 파김치 등 타 김치 제공	국내산 배추김치 (겉절이 포함) 제공	단무지 제공
46.9	21.9	15.6	15.6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1년 3/4분기 엽근채소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년 동기(2020년 2/4분기)에 비해 8.5% 감소하고, 양념채소는 7.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엽근채소 3/4분기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모든 주요 품목에서 전년 동기 대비 5.1~10.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배추김치의 경우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양념채소의 3/4분기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모든 주요 품목에서 전년 동기 대비 5.6~10.3%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건고추의 경우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채소류 품목별 3/4분기 예상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구분	엽근채소	구분	양념채소
배추	−7.0	건고추	−10.3
배추김치	−10.7	고춧가루	−5.6
무	−8.7	마늘	−5.3
당근	−8.4	양파	−8.7
양배추	−5.1	대파	−7.3
소계	−8.5	소계	−7.8

주: 소계는 음식점의 품목별 구매 비중(가중치)을 알 수 없어 단순평균을 낸 결과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2.4. 과채류

- 2021년 2/4분기 주요 과채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함.
  - 풋고추, 애호박, 오이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3.9%, 3.8%, 1.1% 감소하였음.

과채류 품목별 2/4분기 월평균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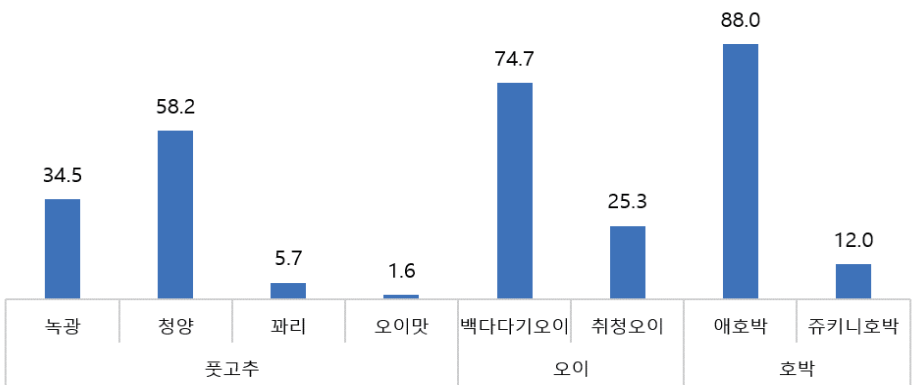
풋고추	오이	애호박	소계
-3.9	-1.1	-3.8	-2.5

주: 소계는 음식점의 품목별 구매 비중(가중치)을 알 수 없어 단순평균을 낸 결과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음식업체에서 주로 구입하는 풋고추 품종은 청양계풋고추가 58.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반(녹광)풋고추(34.5%), 꽈리고추(5.7%), 오이맛(1.6%) 순으로 구입함.
  - 오이는 취청오이(25.3%)보다는 백다다기오이(74.7%)를, 호박은 쥬키니(12.0%)보다는 애호박(88.0%)을 주로 구입함.

과채류 품목별 구입 품종

단위: %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1년 3/4분기 주요 과채류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년 동기(2020년 2/4분기) 대비 7.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애호박, 풋고추, 오이의 3/4분기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8.3%, 8.2%, 6.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과채류 품목별 3/4분기 예상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풋고추	오이	애호박	소계
−8.2	−6.5	−8.3	−7.4

주: 소계는 음식점의 품목별 구매 비중(가중치)을 알 수 없어 단순평균을 낸 결과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2.5. 축산류

- 2021년 2/4분기 축산물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함.
  - 쇠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계란, 돼지고기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18.9%, 14.8%, 5.6%, 1.4%, 1.3% 감소하였음

축산물 품목별 2/4분기 월평균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소계
−18.9	−1.3	−5.6	−14.8	−1.4	−2.1

주: 소계는 각 품목별 가중치를 알 수 없어 단순평균을 낸 결과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1년 2/4분기 축산물 주요 품목의 원산지별 구입 비중을 조사한 결과, 쇠고기를 제외한 대부분 축종의 국내산 구매율이 60.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쇠고기는 호주산 비중이 74.9%로 가장 높았으며, 전년 동기에 비해 국내산과 미국산 구입 비중이 각각 0.4%p, 5.5%p 감소함.
  - 돼지고기의 국내산 구입 비중은 67.0%로 전년 동기 대비 1.7%p 증가하였으며, 그 외 칠레산은 1.3%p 증가하고, 캐나다산과 미국산은 각각 1.5%p, 0.9%p 감소함.
  -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구입 비중은 각각 84.2%, 100.0%로 다른 축종에 비해 국내산 비중이 높게 나타남.

축산물 품목별 원산지 구입 비중

단위: %

구분	2020년 2/4분기					2021년 2/4분기				
쇠고기	국내산	호주산	미국산			국내산	호주산	미국산		
	9.2	68.9	21.9			8.8	74.9	16.4		
돼지고기	국내산	미국산	캐나다산	칠레산	뉴질랜드산	국내산	미국산	캐나다산	칠레산	뉴질랜드산
	65.3	11.7	7.3	11.7	1.7	67.0	10.8	5.8	13.0	1.7
닭고기	국내산	미국산	브라질산	기타		국내산	미국산	브라질산	기타	
	83.7	6.8	8.4	1.1		84.2	7.5	7.3	1.0	
오리고기	국내산	프랑스산				국내산	프랑스산			
	100.0	0.0				100.0	0.0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1년 3/4분기 주요 축산물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년 동기(2020년 2/4분기)에 비해 4.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쇠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계란의 3/4분기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22.3%, 14.8%, 6.6%, 4.0%, 3.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축산물 품목별 3/4분기 예상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소계
-22.3	-4.0	-6.6	-14.8	-3.8	-4.6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2.6. 기타

- 2021년 1/4분기 식재를 전처리된 형태로 구입하는 이유로 '주방내 조리시간이나 작업공정을 단축하기 위해서'가 42.5%로 가장 높았음.
  - 그 뒤로 '식재료 구입처에서 전처리 식재를 공급해서(18.5%)', '점포에서 전처리할 인력이 부족하여(15.8%)', '재료의 손실을 줄이고, 식재의 재고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13.7%)'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전처리 식재의 구입 이유

단위: %

항목	비중
주방내 조리 시간이나 작업공정을 단축하기 위하여	42.5
식재료 구입처에서 전처리 식재를 공급해서	18.5
점포에서 전처리할 인력이 부족하여	15.8
재료의 손실을 줄이고 재고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13.7
쓰레기 처리가 곤란하여	9.3
단가가 저렴해서	0.2
소계	100.0

주: 해당 조사의 대상으로 감자, 무, 배추, 건고추, 마늘, 양파, 대파, 당근을 포함함.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1년 2/4분기 식자재 구입 시 애로사항으로 '가격등락이 심함'이 31.8%로 가장 높았음.
  - 그 뒤로 '품질의 손상이나 신선도가 떨어짐(22.1%)',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곤란함(20.3%)', '규격이 균일하지 않음(20.3%)' 순으로 나타남.

농산물 식자재 구입 시 애로사항

단위: %

항목	비중
가격등락이 심함	31.8
품질의 손상이나 신선도가 떨어짐	22.1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곤란함	20.3
규격이 균일하지 않음	17.6
적절한 가격정보를 얻기 곤란함	8.2
소계	100.0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후식 과일의 경우, 응답자의 5.5%만이 후식 과일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공되는 후식 과일은 수박이 2.4%로 가장 높았음.

– 후식 과일 제공 시, 수입산 과일을 선호하는 이유로 '국내산의 가격경쟁력이 수입산보다 낮아서'가 45.5%로 가장 높았음.

후식 과일 비율

단위: %

항목	비중	항목	비중
수박	2.4	토마토	0.9
오렌지	2.1	파인애플	0.3
사과	1.5	수입포도	0.3
참외	1.2	바나나	0.3
배	0.9	키위	0.3

주: '제공하지 않음'의 비율은 94.5%이며, 각 항목에 대한 중복응답을 포함함.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수입산 과일 선호 이유

단위: %

항목	비중
국내산의 가격경쟁력이 수입산보다 낮아서(수입산이 더 저렴함)	45.5
국내산과 선호도 차이가 없어서	27.3
국내산의 맛/품질/규격이 일정하지 않아서	27.3
소계	100.0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코로나19 확산 후 식자재의 조달의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아니오' 응답이 100.0%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2.7 요약 및 시사점

- 2021년 2/4분기 음식점업체의 농축산물 주요 품목별 월평균 구매량은 2020년 2/4분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품목별로 살펴보면 엽근채소, 양념채소, 과채류, 축산물의 구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3.1%, 3.9%, 2.5%, 2.1% 감

소하였음.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2021년 4~6월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2020년 4~6월)보다 감소한 것으로 사료되며, 코로나19 확산 후 식자재 조달의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3/4분기 음식업체의 농축산물 주요 품목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채소류의 원산지별 구입 형태를 분석한 결과, 배추김치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서 국내산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산 구매율은 배추김치, 깐양파, 고춧가루 순으로 높음.
- 중국산 김치 소비량은 비슷하다는 의견이 76.9%로 가장 높았고, 감소했다는 의견은 22.4%에 달하였다. 감소의 이유로는 중국산 김치 위생 논란으로 인한 소비자의 우려가 96.9%로 가장 높았으며, 21.9%가 깍두기, 파김치 등 타 김치 제공하여 중국산 김치를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축산물의 원산지별 구입 비중은 쇠고기를 제외한 대부분 축종에서 국내산의 구입 비중이 60% 이상이며, 쇠고기의 국내산과 미국산 비중은 전년 동기에 비해 감소함.
- 농산물을 전처리된 식자재로 구입하는 이유는 주방내 조리시간이나 작업공정을 단축(42.5%)하기 위해서란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식재료 구입처에서 전처리 식자재 취급(18.5%), 점포 내 전처리할 인력 부족(15.8%) 순으로 나타남.
  - 식자재 구입 시 애로사항에 대해 응답 업체의 31.8%가 농산물의 가격 등락이 심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였고, 품질의 손상이나 신선도 하락(22.1%),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곤란함(20.3%) 또한 문제가 되고 있음.
- 후식과일을 제공한다는 음식점업체는 5.5%로 적으며, 제공하는 후식과일로는 수박, 오렌지, 사과 순으로 나타남.

특별주제

❶ 농업인의 이상기후 대응 현황과 시사점

❷ 2021년 하반기 농업부문 수정 전망

농업인의 이상기후 대응 현황과 시사점[1)]

정학균*, 성재훈**, 최진용***

1. 이상기후가 농축산물에 미친 영향

1.1. 2020년 여름철 이상기후와 농축산물 피해 현황

□ 2020년 여름철은 평년에 비해 긴 장마와 3번의 태풍으로 농축산물에 큰 피해 발생

- 장마는 평년에 비해 매우 길었을 뿐만 아니라 제8~10호 태풍이 발생하여 강우량과 강수일수가 평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
  - 주요 대도시를 기준으로 보면 2020년 여름철(6~8월) 강우량과 강수일수는 평년에 비해 193.6~735.5mm, 1~11.5일 더 많았음. 특히, 부산과 광주는 태풍으로 인해 평년보다 약 2배 높은 강우량을 기록함.

여름철(6~8월) 이상기후 현황

단위: mm, 일

구분	강우량				강수일수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서울	부산	광주	대전
2020 (평년과의 차이)	1,085.7 (193.6)	1,517.1 (735.5)	1,471.3 (683)	1,099 (229.3)	46 (5.2)	39 (3.4)	42 (1)	55 (11.5)
평년	892.1	778.6	788.3	869.7	40.8	35.6	41	43.5

주 1) 평년은 1981~2010년의 평균임.
2) ( )는 2020년과 평년의 차임.
자료: 기상자료개방포털(data.kma.go.kr).

1) "'농업인의 이상기후 대응 현황과 시사점"(KREI 현안분석 제28호)를 참고하여 작성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hak8247@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jsung@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초청연구원(cjin8052@krei.re.kr)

- 평년에 비해 긴 장마와 3번의 태풍이 동반한 비와 바람으로 7~8월 농작물 총 피해 규모는 34,175ha가 침수 및 낙과 피해를 입었으며, 2,937ha는 유실·매몰되는 피해를 입음.
  - 제8호 태풍 '바비'로 인해 농작물 8,902ha가 피해를 입었으며, 4.6ha는 유실·매몰되었음.
  -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농작물 115,028ha가 침수 및 낙과 피해를 입었고, 185ha는 유실·매몰되었음.
  - 축산의 경우 한우 1,213마리, 돼지 7,147마리, 육계 1,252,437수 등의 폐사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함.

7~8월 집중호우 피해 현황(농작물)

단위: ha

침수(계)	벼	논콩	과수	밭작물	채소	기타	낙과	유실·매몰
33,492	25,655	636	691	2,030	3,354	1,126	683	2,93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내부자료.

7~8월 집중호우 피해 현황(축산물)

단위: 마리, 수

구분	한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토종닭	오리	염소	기타
합계	1,213	94	7,147	221,535	1,252,437	162,023	270,505	672	62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내부자료.

8~9월 태풍 피해 현황

구분	바비(8. 26~27)	마이삭(9. 2~3)·하이선(9. 6~7)
농작물	8,902ha	115,028ha
유실·매몰	4.6ha	185ha
시설물	12ha	177ha
가축폐사	돼지 70마리, 오리 2,000마리, 양봉 211군	한우 14마리, 돼지 1,530마리, 가금류 11천 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내부자료.

1.2. 2020년 이상기후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 이상기후와 소비자 후생

- 긴 장마와 태풍과 같은 이상기후는 농산물의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쳐 농산물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음(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월보 2020년 9월호). 가격 급등은 소비자 후생 감소를 의미함(성재훈 외 2019).
  - 사과와 배는 저온 피해와 긴 장마 이후 고온 다습한 기상 영향으로 갈색무늬병, 탄저병 등 병해가 발생하여 가격이 평년 대비 각각 91.8%, 25.3% 상승하였음. 특히 태풍 영향으로 영남지역 중심으로 낙과 피해가 발생하였음.
  - 포도는 열과, 탄저병, 노균병 등 병해가 발생하였고 일조량이 부족하여 착색과 당도 등 전반적인 생육이 부진하여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5.6% 상승하였음.
  - 배추와 무는 생육기 초기에 잦은 비로 병해가 증가하고 일조시간이 부족하여 결구가 지연되고 중량(구중)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생육이 부진하여 가격이 평년 대비 54.7%, 30.5% 상승하였음.

7~8월 집중호우에 따른 주요 농산물 가격변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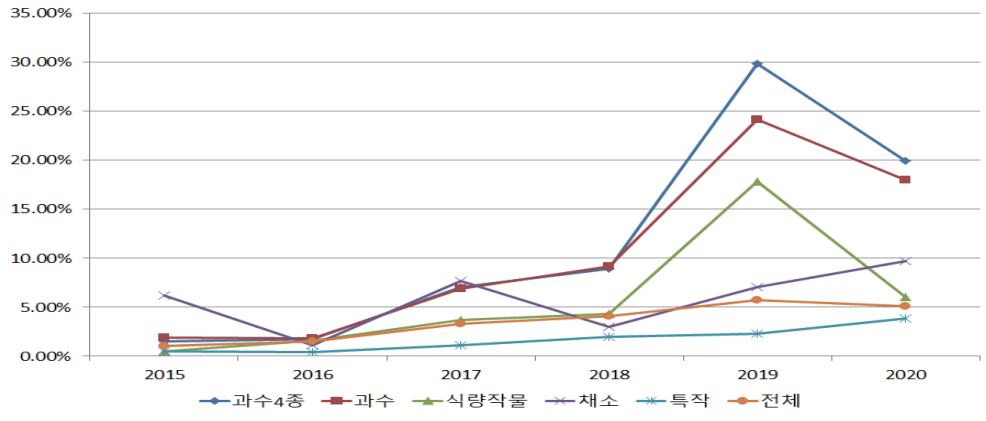
품목	단위	기간	2020년산	평년	증가율(%)
사과	10kg/원	8~9월	80,726	42,080	91.8
배	15kg/원	7~9월	59,684	47,649	25.3
포도	5kg/원	7~9월	23,664	22,403	5.6
배추	10kg/원	8~9월	20,103	12,999	54.7
무	20kg/원	8~9월	22,184	17,000	30.5

주 1) 평년은 1981~2010년의 평균임.
2) 사과는 홍로, 배는 신고, 포도는 캠밸얼리, 배추와 무는 고랭지 품종의 가격임.
자료: 농산물유통정보(www.kamis.or.kr).

□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인들의 보험료 및 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

- 이상기후의 빈도와 강도 증가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율(보험금/계약가입금액)을 증가시켰으며, 이는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함.
  - 구체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전체의 손해율은 2015년 1.04%에서 2020년 5.09%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재해 면적이 큰 2018년 이후에는 손해율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남.
  - 지금까지 품목이 변하지 않으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비중이 높은 과수 4종(단감, 떫은 감, 배, 사과) 역시 손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2015년 1.48%에서 2019년 29.84%로 증가하였음.
  - 또한 성재훈 외(2019)에서 2001~2018년 동안 강풍으로 인한 사과와 배의 손해율 증가는 약 20%정도인 것으로 분석됨.
  - 손해율의 증가와 더불어 재해로 인한 보험료 지급금액과 농업인들이 납입하는 순보험료와의 차이는 점점 커지는 추세임. 이는 앞서 언급한 농업인들의 보험료뿐만 아니라 농작물재해보험 유지에 필요한 정부의 재정 역시 증가함을 의미함.

품목별 손해율 변화(2015~2020년)



주: 과수 4종을 제외한 품목의 경우 연도별로 포함된 작물의 수가 상이함.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https://www.apfs.kr/front/contents/chart1ListPage.do?menuId=5366, 검색일: 2021. 4. 15.).

2. 이상기후의 전망과 대응정책 현황

2.1. 이상기후의 개념 및 전망

- 이상기후는 기상조건을 나타내는 기온, 강우량, 풍속 등의 기후요소가 정해진 기준(threshold)보다 크거나 작을 때를 뜻함. 이상기후의 발생 빈도 및 강도는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고 미래에도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성재훈 외 2019).
  - 강수 혹은 기온과 관련된 이상기후의 공간적 분포와 그 변화를 분석한 결과, 물 부족과 홍수 관련 이상기후는 기후변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2021~2040년과 2071~2100년의 물 부족은 매우 심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를 포함한 중부지역의 물 부족이 남부지역보다 심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또한 홍수의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현재에 비해 그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고온과 관련된 이상기후(평균+2σ)는 기후변화로 인해 중부지역과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계측되었음. 저온 관련 이상기후(평균−2σ)는 2021~2040년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증가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마지막으로 폭염(최고기온이 35℃ 이상)은 중부지역과 해안지역, 그리고 경상도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2.2. 우리나라 이상기후 대응 현황

- 중장기 기후변화 대응계획으로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농림축산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등을 통하여 이상기후 관련 세부적인 대응정책을 제시함.
  -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19~2040)'은 기후변화 대응 최상위 계획이며, 농업부문에서 고온·병해충에 저항성이 강한 작물 품종 개발, 기상재해서비스 제공 및 예찰·방제·방역대책 강화 등의 과제를 담고 있음.
  -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에서는 이상기후에 탄력적인 농림업 생산체계 마련, 농업용수 안정적 공급 기반 마련, 재해대비 농수산 기반 시설 관리체계 구축, 내재해형 농축산업 생산시설 확대, 이상기후에 대한 축종별 영향 파악 및 안정적 생산성 확보 기술 개발 등을 포함함.
  - '농림축산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11~2020)'에서는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내재해 비닐하우스 개발, 저수지 비상대처 계획 수립, 수리시설 개·보수 등의 핵심과제가 제시됨.
- 이상기후 대응 연구개발은 농촌진흥청의 '신농업기후 대응' 어젠다의 기후영향 예측평가, 기상재해 대응기술 개발 등의 대과제로 수행 중임.
  - 기후영향 예측평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환경 취약성 평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생산성 취약성 평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취약성 평가, 기후변화 대응 작물 생육 및 작황 변동 평가 등이 있음.
  - 기상재해 대응기술 개발로는 기상재해 대응 농업환경정보 융합서비스 기반 구축, 이상기후 대응 작물·축산의 피해양상기준 및 경감기술 개발, 기상재해 피해경감 내재해 농업시설 개발, 가뭄 대응 최적 관개기술 개발 등이 있음.
- 한국농어촌공사를 중심으로 농업분야 기후변화 및 이상기후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추진 중임.
  - 가뭄 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어촌 지역에서 필요한 농업·생활·환경용수 등을 확보·공급함으로써 안전영농 기반

구축과 농어촌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있음.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기 설치된 저수지 및 방조제의 시설물(물넘이, 제당 및 배수갑문 등) 보강을 실시하고 있음.
- 홍수 발생 시 침수 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문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논에서의 타 작물 재배 기반을 조성하고 있음.

- 정부 기관에서 이상기후 중장기 정책, 연구개발, 기반 시설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가 단위에서 과연 이상기후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임. 이상기후가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으나 적응하기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됨. 이상기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이상기후 인식 및 이상기후 대응 실태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현재 정부의 이상기후 대응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3. 농업인의 이상기후 대응 현황[2)]

- 농업인들은 미래 이상기후가 보다 심화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상기후 대응으로 중간재비와 노동력 투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농업인에게 정확한 맞춤형 정보 제공, 이상기후 대응 교육 및 정책 홍보가 필요함.

3.1. 이상기후 및 영향에 대한 인식

– 이상기후가 보다 빈번하고 보다 높은 강도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농업인은 78.0%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농업인은 88.1%로 나타남. 또한 미래에 이상기후는 보다 빈번하고 보다 높은 강도로 발생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91.0%였음.

농업인의 이상기후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응답 수	비율
이상기후 인지	(전혀) 모른다	17	2.4
	보통이다	139	19.6
	(잘) 알고 있다	553	78.0
이상기후 느낌	(전혀) 느끼지 않는다	7	1.0
	보통이다	78	11.0
	(매우) 느낀다	627	88.1
미래의 이상기후는 보다 높은강도로 보다 빈번하게 발생할 것	(전혀) 그렇지 않다	8	1.2
	보통이다	55	7.9
	(매우) 그렇다	635	91.0

자료: 성재훈 외(2019).

2) 본 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기본과제로 수행한 『이상기후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성재훈 외 2019)의 농업인 이상기후 대응 실태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힘. 농업인의 이상기후 적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국 현지 통신원 및 리포터 가운데 이메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2019년 9월 10~15일, 9월 17~30일 두 번에 걸쳐 온라인 예비조사, 본 조사를 실시함. 이메일 조사 대상 농가는 전체 719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응답이 부실한 4농가를 제외하고 715농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음.

- 농업인들은 생산성에 가장 크게 부(−)의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폭염(40.6%), 가뭄(25.7%), 태풍(15.1%), 호우(11.1%)를 꼽았음.
- 이상기후 발생 시 병충해 혹은 가축질병 발생에 대응하여 농약(항생제)과 노동력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응답 비율이 각각 41.9%, 78.6%로 '더 적게 사용한다'는 응답 비율 27.4%, 3.9%보다 더 높은 응답 비율을 보임. 이는 이상기후가 안정적인 농가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이상기후 영향 인식

단위: 명, %

구분		응답 수	비율
생산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상기후 요소	폭염	284	40.6
	가뭄		
	태풍	106	15.1
	호우		
	한파	51	7.2
	기타		
이상기후와 농약(항생제) 사용량 증가	(전혀) 아니다	191	27.4
	보통이다	214	30.7
	(매우) 그렇다	292	41.9
이상기후와 비료(사료) 사용량 증가	(전혀) 아니다	244	34.9
	보통이다	274	39.2
	(매우) 그렇다	181	25.9
이상기후와 노동력 사용량 증가	(전혀) 아니다	27	3.9
	보통이다	123	17.6
	(매우) 그렇다	551	78.6

자료: 성재훈 외(2019).

3.2. 이상기후 대응 현황

– 정부 기관(품목 연구소,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이상기후 정보를 받아본 경험(76.6%)은 많았지만 그 정보를 농사에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8.2%로 낮았음. 이는 향후 이상기후 정보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함.

이상기후 정보를 받아본 경험 및 활용도

단위: 명, %

구분		응답 수	비율
이상기후 정보를 받아본 경험	예	544	76.6
	아니오	118	16.6
	잘 모르겠음	48	6.8
이상기후 정보 활용도	(전혀) 활용하지 않는 편	151	21.4
	보통	215	30.4
	(많이) 활용하는 편	341	48.2

자료: 성재훈 외(2019).

– 이상기후 정보를 받은 경험이 있는 농업인 가운데 35.7%만이 이상기후 대응 기술을 제공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상기후 대응기술 적용의 애로사항으로는, ‘고비용의 시설투자가 뒤따르는 문제’(42.0%), ‘기술을 적용한다고 해도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31.5%) 등으로 응답함.

정부 기관의 이상징후 정보와 함께 제공되는 대응기술 적용 실태

단위: 명, %

구분		응답 수	비율
이상기후 대응기술 제공 여부	예	193	35.7
	아니오	221	40.9
	잘 모르겠음	127	23.5
이상기후 대응기술 적용의 애로사항	기술을 적용한다고 해도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57	31.5
	고비용의 시설투자가 뒤따르는 문제가 있다	76	42.0
	적절한 시기에 제공되지 않아 적용하기 어렵다	23	12.7
	이상기후 환경에서 건강의 위험을 무릅쓰고 적용하기 어려운 기술도 있다	17	9.4
	기타	8	4.4

자료: 성재훈 외(2019).

- 이상기후 대응 관련 교육은 소수의 농업인(17.5%)만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주 교육 제공기관은 '농업기술센터'(79.5%)로 나타남. 교육의 농사 활용도에 대해 66.1%가 활용한다고 응답함.
- 이상기후 대응 교육 애로사항으로는 '이상기후 대응 관련 교육의 내용이 많지 않다'(42.3%)와 '이상기후 대응 관련 교육 내용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39.6%)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냄.
- 희망하는 교육 콘텐츠로 '작목(가축)별 이상기후별 대응기술'(49.2%), '이상기후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27.9%), '이상기후 대응 관련 정책'(13.5%) 등으로 나타나 작목(가축)별 이상기후별 대응기술을 개발하여 농업인에게 교육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함.

이상기후 대응 관련 교육을 받고 있는 현황

단위: 명, %

구분		응답 수	비율
이상기후 대응 관련 교육을 받고 있는지 여부	예	124	17.5
	아니오	555	78.4
	잘 모르겠음	29	4.1
이상기후 대응 관련 교육제공자	농업기술센터	97	79.5
	농업기술원	9	7.4
	품목 연구소	6	4.9
	민간 컨설팅회사	3	2.5
	기타	7	5.7
이상기후 대응 관련 교육의 농사 활용 정도	(전혀) 활용하지 않는 편이다	15	12.7
	보통이다	25	21.2
	(많이) 활용하는 편이다	78	66.1
이상기후 대응 관련 교육의 애로사항	이상기후 대응 관련 교육의 내용이 많지 않다	265	42.3
	이상기후 대응 관련 교육 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77	12.3
	이상기후 대응 관련 교육 내용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48	39.6
	이상기후 대응 관련 교육을 받을 기회와 교육 안내가 없다	13	2.1
	기타	24	3.8
희망하는 이상기후 대응 관련 교육 콘텐츠	이상기후 현황 및 전망	60	8.9
	이상기후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	188	27.9
	작목(가축)별 이상기후별 대응기술	332	49.2
	이상기후 대응 관련 정책	91	13.5
	기타	4	0.6

자료: 성재훈 외(2019).

3.3. 정책 건의

- 농업인들은 정부가 추진해야 할 이상기후 정책으로 '교육 및 홍보'(30.9%), '사전에 정확한 이상기후 정보 제공'(22.8%), '작목별 대책 혹은 기술 지원'(14.8%) 등을 제시함.
- 농업인이 이상기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상기후 관련 교육과 정책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사전에 정확한 이상기후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중요한 정책임.

이상기후 정책 건의사항(중복응답 허용)

구분	응답 수	비율
교육 및 홍보	96	30.9
사전에 정확한 이상기후 정보 제공	71	22.8
작목별 대책 혹은 기술 지원	46	14.8
정부 시설 지원 및 시설 개선 지원	35	11.3
내재해성 작물 보급 및 작목전환 지원	32	10.3
재해보험 지원 및 피해보상	25	8.0
기타	6	1.9
합계	311	100.0

자료: 성재훈 외(2019).

4. 시사점

- 이상기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상기후가 농축산물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상기후 대응 관련 맞춤형 정보의 제공, 이상기후 대응 교육 및 정책 홍보 강화가 필요함.
- 이상기후 대응을 위해서는 우선 이상기후 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분석 툴 개발, 관련 자료 축적 등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이상기후 영향평가의 중요성은 국제기구 및 해외사례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됨. 이는 이상기후 영향평가가 이상기후 위험관리의 시작점이며, 이상기후 위험관리 정책의 모니터링과 평가, 그리고 재원 배분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임(성재훈 외 2019).
  - 보다 정확한 이상기후 영향평가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이상기후 영향평가 방법론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를 바탕으로 정책 의사결정 지원, 정책 모니터링, 정책 평가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함. 현재 미국과 EU, 그리고 영국은 기후변화와 이상기후 위험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도구를 구축하고 이를 기후변화 적응과 재해위험관리 정책의 계획 및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기후변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 및 국제사회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시작된 정보 공유 프로젝트 MEDIATION은 영향 및 취약성 평가를 위한 방법 검토를 통해 기후변화의 영향 및 취약성, 이에 대한 적응전략을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이나 기준을 마련 및 제공하고 있음.
  - 기상조건의 변화는 이상기후의 영향을 식별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며, 이에 따라 이상기후의 재해비용을 보다 정교하게 식별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품목 관련 자료가 필요함.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재해위험 식별을 위한 농업 관련 자료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농업분야의 경우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료는 시도 단위이거나 기간이 매우 짧은데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우선 요구됨.

- 농업인들이 이상기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이상기후 정보, 이상기후 영향 정보, 그리고 대응 기술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설문조사 결과, 정부 기관(품목 연구소,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이상기후 정보를 받아본 적이 있는 농가 비율은 높았지만(76.6%) 그 정보를 농사에 활용하고 있다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음(48.2%). 이는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농가들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못 미침을 의미함.
  -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수요자에게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된 정보를 하나로 모아서 가공하여 수요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함. 이를 위한 방안으로 빅데이터센터나 플랫폼 구축을 들 수 있음. 빅데이터센터에서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실제로 수요자가 활용 가능한 정보로 가공하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임.
  - 기후변화 적응 정책은 정확한 정보를 농가에게 제공하여 농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기후변화 적응을 돕는 역할이 핵심임. 기상청,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서 생성되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하나로 모으고, 가공하여 농가에게 보급하는 가칭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 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임.
- 농업인들의 이상기후 대응을 돕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이상기후 대응 교육 및 정책 홍보를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이상기후 대응 관련 교육의 애로사항으로는 '이상기후 대응 관련 교육의 내용이 많지 않다'(42.3%), '이상기후 대응 관련 교육 내용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39.6%) 등이 있었음. 이는 이상기후 대응 관련 교육 내용을 보다 확대하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이상기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정기적으로 이상기후 실태 및 전망, 이상기후의 부정적인 영향, 이상기후 대응기술 혹은 대책을 전문가를 통

해 교육해야 함. 특히 이상기후 대응 교육 콘텐츠로 작목(가축)별 이상기후별 대응기술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았으므로(49.2%) 대응기술을 반드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이상기후 교육과 함께 정부의 다양한 이상기후 대응정책을 소개해 줄 필요가 있음. 즉, 재해보험이나 시설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

-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 및 정책 홍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의 활용, 농가 컨설팅, 매뉴얼 작성 및 보급, 이상기후 대응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등도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

2021년 하반기 농업부문 수정 전망

서동주*, 서홍석**, 김재휘***

1. 전망모형과 거시지표 가정

- (전망모형)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07~08년 개발한 이후 지속 운용하고 있는 KREI-KASMO(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를 이용
  - KREI-KASMO는 국내 농업부문에 한정된 부분균형모형으로 국제시장 및 비농업부문 시장은 모형에서 외생변수로 취급
  - 국내 농산물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으로 생산자 또는 소비자가 시장지배력을 갖지 않으며, 가격은 수급균형에 의해 결정
  - 재배업 65개, 축산업 9개 등 총 74개의 품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품목 기준으로 116개 품목을 포함
  - 감자는 봄, 여름, 가을로 배추와 무는 봄, 여름, 가을, 시설로 구분하였으며, 파는 대파, 쪽파, 낙농품은 치즈, 버터, 발효유, 연유, 분유(조제분유, 전지분유, 탈지분유)의 7개로 세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위원(tjsuh@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hongseokseo@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위촉연구원(raccoon_kjh@krei.re.kr)

- (거시지표) 2021~30년 농업부문 전망을 위하여 최근 국내외 전망기관이 발표한 거시경제지표 전망치를 이용하였으며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음.
  - 실질 GDP, 소비자 물가(CPI), GDP 디플레이터의 2020년과 2021년 전망치는 한국은행 「2020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이용하였고, 중장기 전망치는 Global Insight Inc. 전망치를 준용하여 각각 연평균 2.0%, 1.5%, 1.5%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 원/달러 환율은 Global Insight Inc. 전망치를 준용하여 2021년 1,127.6원/달러, 2030년 1,160.6원/달러로 가정하였음.
  - 20/21, 21/22년산 국제곡물가격은 미국 농림부(USDA)의 경제연구소(ERS)에서 2020년 12월 31일에 발표한 전망치를 준용하였으며, 이후 전망치는 2020년 8월 경 미국 미주리 농식품정책연구소(FAPRI)에서 발표한 중장기 전망치를 준용하였음.

거시경제지표 전망치 비교: 2021년 상반기 및 하반기 전망

구 분	2021년 상반기 전망			2021년 하반기 전망		
	2021	2030	30/20	2021	2030	30/20
실질 GDP (천 억)	18,873	22,264	1.9%	18,873	22,348	2.0%
소비자물가지수 (2005=100)	106.0	121.7	1.5%	106.8	122.5	1.5%
GDP디플레이터 (2005=100)	106.2	121.6	1.5%	106.1	121.9	1.5%
환율 (원/달러)	1,124.9	1,158.1	–0.2%	1,127.6	1,160.6	–0.1%

자료: 한국은행, Global Insight Inc., ERS, FAPR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2. 농업 생산 전망

2.1. 재배업 생산 전망

- (2021년 전망) 경지면적은 전년보다 0.9% 줄어든 155.0만 ha로 전망
  - 경지면적 감소폭보다 농가인구의 감소폭이 커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은 0.9% 증가한 71.7a가 될 전망이며, 경지이용률은 1.0%p 증가한 108.0%가 될 전망
- (중장기 전망) 농촌의 고령화, 농지 전용 수요 증가 등으로 경지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5년 150.2만 ha, 2030년 146.8만 ha로 전망
  - 농가인구 감소폭이 경지면적 감소폭보다 커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은 2025년 74.9a, 2030년 78.4a로 연평균 1.0% 확대될 전망이다.
  - 2025년 경지이용률은 2021년 108.0%에서 소폭 하락한 107.9%로 전망되며, 이후 하락세가 이어져 2030년에는 106.2%가 될 전망

경지면적과 경지이용률 동향과 전망

구 분	2000	2019	2020	전망			연평균 변화율(%)			
				2021	2025	2030	19/00	20/19	21/20	30/20
경지면적(천 ha)	1,889	1,581	1,565	1,550	1,502	1,468	-0.9	-1.0	-0.9	-0.6
농가인구당 경지면적(a)	46.9	70.4	71.1	71.7	74.9	78.4	2.2	1.0	0.9	1.0
경작가능면적(천 ha)	1,899	1,533	1,517	1,503	1,456	1,424	-1.1	-1.0	-0.9	-0.6
재배면적(천 ha)	2,098	1,643	1,624	1,624	1,571	1,512	-1.3	-1.2	0.0	-0.7
경지이용률(%)	110.5	107.2	107.0	108.0	107.9	106.2	-0.2%p	-0.2%p	1.0%p	-0.1%p

주: 경지이용률은 (재배면적 / 경작가능면적 × 100)으로 산출됨.
자료: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 (2021년 전망)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한 162.4만 ha 수준 전망
  - 조미채소, 과채류, 과수 및 특용작물을 제외한 모든 부류의 재배면적이 감소할 전망
  - 쌀, 콩 등을 포함하는 곡물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0.4% 감소한 90.3만 ha

로 전망

- 채소류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0.5% 증가한 26.3만 ha로 전망
- 과채류는 수박과 참외를 제외한 대부분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고추, 양파, 대파 재배면적은 각각 4.0%, 3.4%, 8.0% 증가하나, 마늘의 큰 폭 감소(△5.7%)로 조미채소류는 1.5% 증가할 전망
- 엽채류와 근채류는 배추(△4.3%)와 무(△3.5%) 재배면적 감소 주도로 각각 3.6%, 2.3%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과수 재배면적은 복숭아를 제외한 대부분이 증가하여 1.8% 증가할 전망
- 특용·약용작물 재배면적은 2.0% 증가하나, 기타작물은 1.2% 감소 전망

• (중장기 전망) 특용·약용작물과 기타작물을 제외한 부류별 재배면적이 대부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전체 재배면적은 연평균 0.7% 감소하여 2030년 151.2만 ha로 전망
- 곡물류, 채소류, 과수 재배면적은 연평균 각각 1.2%, 0.7%, 0.5% 감소할 전망

부류별 재배면적 동향과 전망

단위: 천 ha

구 분	2000	2019	2020	전망			연평균 변화율(%)			
				2021	2025	2030	19/00	20/19	21/20	30/20
전체 재배면적	2,098	1,643	1,624	1,624	1,571	1,512	−1.3	−1.2	−0.0	−0.7
곡물류	1,318	924	906	903	860	806	−1.9	−2.0	−0.4	−1.2
채소	386	266	261	263	252	243	−1.9	−1.7	0.5	−0.7
엽채류	76	42	47	45	43	40	−3.1	12.5	−3.6	−1.6
근채류	45	22	24	23	22	22	−3.8	9.2	−2.3	−0.7
조미채소	168	105	94	96	89	84	−2.4	−10.2	1.5	−1.1
과채류	69	43	41	41	41	41	−2.5	−4.6	1.7	0.0
과수	173	161	157	160	155	148	−0.4	−2.4	1.8	−0.5
특용·약용작물	92	80	78	79	79	79	−0.7	−3.2	2.0	0.2
기타작물	129	212	222	219	226	235	2.7	4.5	−1.2	0.6
사료작물	24	101	112	109	111	115	7.9	11.1	−2.6	0.3

주: 통계청의 농산물 부류별 재배면적 작성 기준과 동일하게 작성함.
자료: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2.2. 축산업 생산 전망

- (2021년 전망) 가축 사육마릿수는 전년 대비 4.6% 감소한 184.6백만 마리로 전망
  - (우제류) 돼지 사육마릿수는 모돈 감소로 전년 대비 1.2% 감소하고, 젖소는 0.4% 감소하나, 2020년 가임암소 증가의 영향으로 2021년 소 사육마릿수가 4.2% 증가하여 우제류 사육마릿수는 전년과 비슷할 전망
  - (가금류) 육계, 오리, 산란계 사육마릿수는 2020년 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발생으로 각각 전년 대비 1.5%, 32.4%, 6.2% 감소하여 가금류는 5.0% 감소한 169.6백만 마리 수준으로 전망
- (중장기 전망) 육류 및 계란 소비 증가로 젖소와 오리를 제외한 모든 가축의 사육마릿수가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우제류) 젖소 사육마릿수는 연평균 0.2% 감소하는 반면, 소와 돼지는 각각 0.8%, 0.6% 증가하여, 2030년 우제류 사육마릿수는 연평균 0.6% 증가한 16.0백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가금류) 2030년 오리 사육마릿수는 2021년 큰 폭 감소한 후 완만하게 회복하여 2030년 사육마릿수는 8.1백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전망, 육계·산란계는 각각 연평균 0.7%, 0.4% 증가하여 2030년 가금류 사육마릿수는 연평균 0.5% 증가한 188.3백만 마리로 전망

사육마릿수 동향과 전망

단위: 백만 마릿수

구 분	2000	2019	2020	전망			연평균 변화율(%)			
				2021	2025	2030	19/00	20/19	21/20	30/20
총 사육마릿수	112.9	193.4	193.5	184.6	192.8	204.2	2.9	0.1	−4.6	0.5
우제류	10.3	15.0	15.0	15.0	15.5	16.0	2.0	−0.2	0.0	0.6
소	1.6	3.2	3.4	3.5	3.5	3.7	3.8	4.9	4.2	0.8
젖소	0.54	0.41	0.41	0.41	0.40	0.40	−1.5	0.4	−0.4	−0.2
돼지	8.1	11.4	11.2	11.1	11.5	11.9	1.8	−1.7	−1.2	0.6
가금류	102.6	178.3	178.5	169.6	177.4	188.3	3.0	0.1	−5.0	0.5
육계	46.9	98.1	96.3	94.8	95.5	103.7	4.0	−1.9	−1.5	0.7
오리	5.1	8.9	8.7	5.9	7.8	8.1	3.0	−3.0	−32.4	−0.6
산란계	50.5	71.3	73.5	69.0	74.1	76.4	1.8	3.2	−6.2	0.4

주: 가축통계 공표를 위한 조사방식이 변경되어 한육우, 젖소는 2017년 3/4분기부터 이력제 자료로 대체됨.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3. 농식품 소비 동향과 전망

- 90년대부터 소비자의 식품소비행태 변화 등으로 대표적인 7대 곡물과 6대 과일의 소비는 감소하고, 육류와 수입과일의 소비는 증가하는 추세
  - (곡물) 쌀 등 곡물의 1인당 소비량은 연평균 1.2% 감소
  - (과일) 6대 과일 소비량은 2000년 1인당 47.5kg에서 2019년 36.0kg으로 연평균 1.5% 감소, 오렌지와 열대과일 소비량은 동기간 3.9% 증가
  - (육류) 3대 육류의 1인당 소비량은 2000년 32.0kg에서 2019년 54.9kg으로 연평균 2.9% 증가
- (전망) 곡물, 채소, 과일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수입과일과 육류 소비량은 증가할 전망
  - (곡물) 쌀을 포함한 곡물류 소비가 연평균 0.9% 감소하여 2030년 1인당 소비량은 122.8kg으로 전망
  - (채소) 2021년 채소의 소비는 장마, 태풍, 이상저온 등으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전년 대비 2.7% 감소 전망되며, 중장기적으로는 연평균 0.7% 감소하여 2030년 1인당 소비량은 106.7kg으로 전망
  - (과일) 2021년 6대 과일 소비는 작황 양호로 전년 대비 11.2% 증가, 수입과일 소비량은 해외 주산지의 저조한 작황으로 수입량이 줄어 0.5% 감소한 것으로 추정. 중장기적으로는 6대 과일은 2021년 35.4kg으로 증가한 후 연평균 0.1% 감소하며, 오렌지 및 열대과일은 연평균 1.8% 증가하여 전체 과일 소비량은 연평균 1.2% 증가한 51.5kg으로 전망
  - (육류) 3대 육류 소비는 연평균 1.0% 증가하여 2030년 1인당 소비량은 60.4kg에 이를 전망

농식품 소비 동향과 전망[1)]

단위: kg/인

구 분	2000	2019	2020	전망			연평균 변화율(%)			
				2021[1)]	2025	2030	19/00	20/19	21/20	30/20
7대 곡물[2)]	174.8	138.2	134.4	132.0	127.2	122.8	−1.2	−2.7	−1.8	−0.9
5대 채소[3)]	137.7	112.2	114.3	111.2	107.1	106.7	−1.1	1.9	−2.7	−0.7
6대 과일[4)]	47.5	36.0	31.8	35.4	36.5	35.0	−1.5	−11.4	11.2	0.9
오렌지와 수입 열대과일	6.9	14.2	13.8	13.8	14.9	16.5	3.9	−2.6	−0.5	1.8
3대 육류[5)]	32.0	54.9	54.7	54.1	56.8	60.4	2.9	−0.4	−1.1	1.0

주 1) 7대 곡물, 5대 채소, 6대 과일 및 오렌지·열대과일 1인당 소비량은 유통연도 기준, 3대 육류는 회계연도 기준이며, 1인당 소비량은 총 국내 공급량(국내 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 재고 변화량)으로부터 도출된 1인당 공급량을 의미함.
2) 7대 곡물: 쌀, 보리, 밀, 콩, 옥수수, 감자, 고구마
3) 5대 채소: 배추, 무, 마늘, 고추, 양파
4) 6대 과일: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5) 3대 육류: 소, 돼지, 닭

자료: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각 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4. 농업 총량 전망

4.1. 농업생산액 전망

- 2021년 농업생산액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57조 3,530억 원, 재배업 생산액은 전년 대비 5.4% 증가한 32조 5,810억 원, 축잠업은 14.3% 증가한 24조 7,730억 원으로 전망
  - (재배업) 쌀 생산량 감소에 따른 쌀 가격 상승으로 곡물류 생산액은 전년 대비 5.7% 증가한 11조 3,270억 원으로 전망
  - 마늘, 대파, 건고추 등의 생산 감소에 의한 상대적으로 큰 폭의 가격 상승 등으로 조미채소의 생산액은 증가하나, 엽근채소의 생산액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채소류 생산액은 전년과 비슷한 11조 9,770억 원으로 전망
  - 과실류 생산액은 개화기 이상저온 등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이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전년보다 18.5% 증가한 5조 3,470억 원으로 전망
  - (축잠업) 한육우와 돼지는 생산량 증가와 함께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가정식 수요 증가로 가격도 상승하여 전년 대비 각각 11.1%, 7.6% 증가할 전망
  - 닭, 오리, 계란은 HPAI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상승하여 생산액은 각각 전년 대비 15.7%, 29.1, 60.8% 증가할 전망
  - 우유는 젖소 마리당 원유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4.8% 증가 전망
- (중장기 전망) 농업생산액은 중장기적으로 연평균 1.5% 증가하며, 재배업 은 연평균 1.0% 증가, 축잠업 생산액은 연평균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재배업) 곡물류의 생산액은 연평균 0.2% 감소하나, 채소류, 과실류 등의 생산액은 증가하여 2030년 생산액은 연평균 1.0% 증가한 34조 1,8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축잠업) 국내 육류 소비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연평균 2.3% 증가하여 2030년에는 27조 880억 원에 이를 전망

농업 부문 생산액(명목) 동향과 전망

단위: 십억 원

구 분	2000	2019	2020 (추정)	전망			연평균 변화율(%)			
				20211)	2025	2030	19/00	20/19	21/20	30/20
농업 총생산액	31,968	49,680	52,576	57,353	57,956	61,269	2.3	5.8	9.1	1.5
재배업	23,885	29,859	30,909	32,581	32,549	34,181	1.2	3.5	5.4	1.0
곡물류	11,436	10,492	10,718	11,327	11,050	10,456	–0.5	2.2	5.7	–0.2
채소류	6,739	11,127	11,975	11,977	12,519	13,863	2.7	7.6	0.0	1.5
과실류	2,581	4,527	4,512	5,347	4,841	5,377	3.0	–0.3	18.5	1.8
특용·약용	654	1,651	1,748	1,946	2,025	2,225	5.0	5.9	11.3	2.4
축잠업	8,082	19,821	21,667	24,773	25,407	27,088	4.8	9.3	14.3	2.3
한육우	1,879	5,364	5,549	6,162	6,798	7,054	5.7	3.4	11.1	2.4
돼지	2,372	6,392	8,103	8,717	8,846	9,342	5.4	26.8	7.6	1.4
닭	821	2,103	1,859	2,151	2,472	2,893	5.1	–11.6	15.7	4.5
계란	651	1,411	1,618	2,602	1,995	2,232	4.2	14.7	60.8	3.3
우유	1,352	2,215	2,258	2,367	2,545	2,618	2.6	1.9	4.8	1.5
오리	474	1,392	1,387	1,790	1,722	1,864	5.8	–0.4	29.1	3.0
기타	534	944	893	983	1,029	1,085	3.0	–5.4	10.2	2.0

주 1) 2021년 1~2분기의 통계치를 반영한 전망치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각 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4.2. 농업 부가가치 전망

- (2021년 전망) 2021년 농업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8.5% 증가한 32조 2,720억 원으로 전망
  - (재배업) 중간재비는 전년과 비슷하나 판매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액 증가로 재배업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3.8% 증가한 24조 4,200억 원으로 전망
  - (축산업) 사료비, 가축구입비 등 중간재비는 증가하나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액 증가폭이 매우 커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26.5% 증가한 7조 8,520억 원으로 전망

- (중장기 전망)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중장기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31조 8,890억 원 수준에 이를 전망
  - (재배업) 중간재비 증가하나 생산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부가가치는 연평균 0.3%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축산업) 가축과 사료를 포함한 중간재비는 증가하나, 생산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여 부가가치는 연평균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1년 농업부문 부가가치율은 일시적으로 감소하나,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액 증가폭 대비 부가가치 증가폭이 작아 부가가치율은 연평균 0.5%p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재배업과 축산업 부가가치율은 각각 연평균 0.6%p, 0.1%p 감소하여 2030년에는 각각 70.6%, 28.6%로 전망

농업 부가가치[1] 동향과 전망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0	2019	2020	전망			연평균 변화율(%)			
				2021	2025	2030	19/00	20/19	21/20	30/20
농업	20,455 (64.0)[2]	26,908 (54.2)	29,744 (56.6)	32,272 (56.3)	30,662 (52.9)	31,889 (52.0)	1.5 −0.5%p	10.5 2.4%p	8.5 −0.3%p	0.7 −0.5%p
재배업	18,223 (76.3)	21,396 (71.7)	23,536 (76.1)	24,420 (75.0)	22,847 (70.2)	24,137 (70.6)	0.8 −0.2%p	10.0 4.5%p	3.8 −1.2%p	0.3 −0.6%p
축산업	2,232 (27.6)	5,511 (27.8)	6,208 (28.7)	7,852 (31.7)	7,815 (30.8)	7,752 (28.6)	4.9 0.0%p	12.6 0.8%p	26.5 3.0%p	2.2 −0.1%p

주 1) 부가가치는 명목 기준이며, 부대서비스는 제외됨.
2) ( )는 부가가치율을 의미함.
자료: 한국은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5. 농업교역조건 전망

5.1. 농업구입가격 전망

- 2021년 국제 유가 상승과 국제곡물 가격 상승 영향으로, 영농광열비를 비롯한 농업용품 구입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농업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6.3% 상승할 전망
  - (투입재) 투입재비는 전년 대비 3.6% 상승할 것으로 전망
  - (경상재) 원유가격 상승으로 영농광열비와 영농자재비가 전년보다 각각 19.9%, 1.2% 상승하고, 종자비, 비료비, 농약비 또한 각각 1.0%, 0.6%, 1.5% 상승하여, 경상비는 전년 대비 4.5% 상승할 것으로 전망
  - (노임·임차) 노임과 임차료는 전년보다 각각 7.8%, 2.3%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사료·가축구입비) 2021년 사료가격은 국제곡물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으로 전년보다 9.4% 상승하고, 가축구입비는 축산물 산지가격 상승으로 전년보다 7.5% 상승할 전망
- (중장기 전망) 농업구입가격지수는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영농광열비의 연평균 4.2% 상승 영향으로 연평균 1.8% 상승한 126.1로 전망
  - 투입재 가격은 연평균 1.8%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사료 가격은 국제곡물 가격 상승 영향으로 연평균 1.9% 상승 전망
  - 노임, 임차료, 가축구입비는 각각 연평균 2.3%, 0.8%, 0.8% 상승할 것으로 전망

농업구입가격지수 동향과 전망(2015=100)

구 분	2000	2019	2020	전망			연평균 변화율(%)			
				2021[2]	2025	2030	19/00	20/19	21/20	30/20
농업구입가격지수[1]	62.9	102.1	105.4	112.0	118.9	126.1	2.6	3.1	6.3	1.8
투입재	65.6	98.3	100.2	103.8	111.2	120.0	2.2	1.0	3.6	1.8
경상재	66.3	96.0	98.7	103.1	111.5	120.1	2.0	2.8	4.5	2.0
종자	69.2	112.6	115.9	117.0	120.9	125.4	2.6	2.9	1.0	0.8
비료	45.9	72.6	77.9	78.4	91.5	100.9	2.4	7.3	0.6	2.6
농약	67.9	96.8	118.9	120.7	124.4	127.8	1.9	22.8	1.5	0.7
영농광열	66.5	107.7	87.1	104.4	116.4	131.3	2.6	−19.1	19.9	4.2
영농자재	63.6	97.7	102.6	103.8	111.2	120.4	2.3	5.0	1.2	1.6
농기구	65.9	104.6	104.3	105.7	110.2	119.6	2.5	−0.3	1.4	1.4
노임	47.8	119.6	124.2	133.9	149.1	156.4	4.9	3.8	7.8	2.3
임차료	76.4	109.8	112.4	115.0	117.0	122.3	1.9	2.4	2.3	0.8
사료	–	98.2	102.1	111.7	118.4	123.7	–	4.0	9.4	1.9
가축	–	126.9	129.6	139.3	130.9	140.4	–	2.1	7.5	0.8

주 1) 농업구입가격지수는 가계용품을 제외한 농업용품 관련 비용(재료비, 노무비, 경비, 자산구입비)만 고려함.
2) 2021년은 1~2분기의 통계치를 반영한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5.2. 농가판매가격지수 전망

- 2021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농축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여 전년 대비 8.8% 상승할 전망
  - (곡물) 2020년산 쌀 가격의 큰 폭 상승으로 곡물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보다 10.2% 높은 140.5로 전망
  - (청과) 과수류는 2020년산 생산량 감소에 따른 2021년 상반기 가격 상승 영향이 커 전년 대비 4.0% 상승하나, 채소류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청과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1.8% 상승한 136.0으로 전망
  - (축산물) 코로나 19 영향에 따른 가정 내 소비 증가로 축산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13.4% 상승한 115.4로 전망

- (중장기) 2030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농축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여 연평균 1.1% 상승할 전망
  - 곡물은 연평균 0.5% 상승, 축산물은 1.0% 상승하여 축산물의 가격 상승폭이 더 클 전망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과 전망(2015=100)

구 분	2000	2019	2020	전망			연평균 변화율(%)			
				2021[1)]	2025	2030	19/00	20/19	21/20	30/20
전체 농산물	72.8	109.1	117.0	127.3	121.0	130.4	2.2	7.2	8.8	1.1
곡물	101.7	122.4	127.5	140.5	133.5	133.9	1.0	4.2	10.2	0.5
청과물	68.7	117.0	133.6	136.0	132.4	149.2	2.8	14.2	1.8	1.1
채소	71.9	101.6	118.6	117.5	121.5	134.5	1.8	16.7	−1.0	1.3
과수	68.0	142.5	158.5	166.3	151.0	173.9	4.0	11.2	4.9	0.9
축산물	56.3	97.4	101.8	115.4	103.6	112.4	2.9	4.5	13.4	1.0
기타축산물	58.7	102.3	102.2	118.6	122.5	129.4	3.0	−0.1	16.0	2.4

주 1) 2021년은 1~2분기의 통계치를 반영한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5.3. 농업교역조건 전망

- 2021년 농업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6.3% 상승하나 농가판매가격지수의 상승률이 8.8%로 전망됨에 따라 농업교역조건지수는 2.4% 개선될 전망
- (중장기 전망) 농업구입가격지수 연평균 상승률(1.8%)이 농가판매가격지수의 상승률(1.1%)보다 커 농업교역조건은 연평균 0.7% 수준 악화될 전망

농업교역조건(패리티지수) 동향과 전망(2015=100)

구 분	2000	2019	2020	전망			연평균 변화율(%)			
				2021	2025	2030	19/00	20/19	21/20	30/20
농가판매가격지수(A)	72.8	109.1	117.0	127.3	121.0	130.4	2.2	7.2	8.8	1.1
농업구입가격지수[1](B)	62.9	102.1	105.4	112.0	118.9	126.1	2.6	3.1	6.3	1.8
농업교역조건지수[2] (A/B×100)	115.7	106.8	111.1	113.7	101.8	103.4	−0.4	4.0	2.4	−0.7

주 1) 농업구입가격지수는 가계용품을 제외한 농업용품 관련 비용(재료비, 노무비, 경비, 자산구입비)만 고려함.
2) 농업교역조건지수는 농업구입가격지수 대비 농가판매가격지수로 산출되는 농업부문 패리티지수임.
자료: 통계청, 「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